

기본사회 대전환, 지역부터 실천한다

지방정부 기본사회 정책 사례 : 10대 정책, 100개 과제

1

100

CONTENTS

1 기본소득

		발간사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00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8
002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9
003		제주도 장수수당	30
004		부산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31
005		충북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32

2 기본돌봄

006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34
007		전남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35
008		경기 성남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36
009		전남 순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37
010		전남 해남군 아빠휴직 장려금	38
011		강원 횡성군 임신·출산축하용품 지원	39
012		서울시 독거노인을 위한 비대면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40
013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거점 공공급식 연계사업 ..	41
014		결식아동급식 주3회 실온도시락 공급	42
015		저출산·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공공급식 민관협력 모델	43
016		광주 광산구 광산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직사업	44
017		강원 화천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온 마을의 정성	45
018		인천 강화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46
019		전남 순천시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47

3 기본에너지

020	충북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48
021	인천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49
022	부산시 어르신 급식지원	50
023	경기 여주시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	52
024	생태산업단지 전환 및 개발	53
025	LNG 냉·온열 활용 지역 및 산업 활성화	56
026	서울 노원구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국내 최초 친환경 에너지자립단지 ..	59
027	서울 성북구 에너지 절약 공동체 “성북절전소” 운영	60
028	전남 신안군 햇빛바람연금으로 에너지 전환, 인구소멸 문제해결 ...	61
029	가축분뇨 기반 지역순환 에너지 사업	62
030	농업부산물 및 미이용 목재의 순환자원화	63
031	순환자원을 활용한 다회용기 제작 및 보급 사업	64
032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65
033	지역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사업	66

4 기본교육

034	제주도교육청 고3 진로지원비 지원	70
035	경기 성남시 친환경 무상급식	71
036	경남도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72

5 기본주거

037	부산시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73
038	전남 고흥군 무료 책배달 서비스	74
039	서울 도봉구 청년 자기개발 도서관입비 지원	75
040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76
041	경기 화성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77
042	서울 성동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78
043	광주 남구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79
044	전남 무안군 초·중·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80
045	서울 은평구 온 동네가 즐거운 학교인 곳, 행복한 아이 키우는 마을 ..	81
046	경기 화성시 '지역과 학교,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음터	82
047	전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84
048	경기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85
049	서울 금천구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보린주택)	86
050	서울 성북구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도전숙(宿)」	87
051	경기도 청년주거복지 공동체형 플랫폼 경기도기숙사(舊 따복기숙사) ..	88

6 기본교통	052	경기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90
	053	전남 고흥군 수요응답형 버스사업	91
	054	강원 홍천군 만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92
	055	경기 파주시 천원택시	93
	056	경북 청송군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94
	057	경기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똑버스	95
7 기본금융	058	경기도 청년기본대출	98
	059	경북 영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99
	060	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00
	061	경기 화성시 농업인 월급제	101
	062	광주시 청년13(일+삶) 통장 지원	102
	063	광주 광산구 사회적경제기업 클라우드 펀딩	103
8 기본의료	064	경기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106
	065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107
	066	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108
	067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09

9 기본일자리

068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112
069	서울 성북구 어르신이 행복한 삶의 현장	113
070	서울 강동구 엔젤공방 거리조성	114
071	경북 영주시 '중장년들의 덕업일치! 지역을 살리다'	115
072	광주 광산구 복지와 일자리를 잇는 광산구 공동체 복지	116
073	서울 성북구 갑을(甲乙)아닌 동행으로 동행(同幸) 계약서	117
074	경기 용인시 용인청년 희망옷장(면접정장 무료대여)	118
075	강원 속초시 청년 구직자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119
076	경남 하동군 '놀루와'로 행복한 하동 여행	120
077	대구 달서구 마을기업 '아가씨잉'의 따뜻한 경제공동체	121
078	울산 북구 건실한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122
079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 성공모델	123
080	강원 태백시 조탄마을 마을 활성화	124

10 공유경제

081	경기도 지역화폐	126
082	경기도 게임리소스 공유 활성화	127
083	경기도 지역화폐 데이터 배당시스템	128
084	혁신기술을 통한 선진적인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129

085	서울 성동구 지속가능한 상생, 소상공인이 행복한 공공안심상가 ...	130
086	강진군 지역에 더불어 사는 '생활인구' 증대와 공동체 활성화 ...	131
087	기후위기 대응 다화용기, 친환경 용기로의 대전환	132
088	인천 미추홀구 「오래된 미래 - 統 두레 모임」	133
089	인천 미추홀구 주도심지 공가 활용사업	134
090	성남시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	135
091	광주 광산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136
092	광주 서구 1洞 1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137
093	광주 서구 별마루 행복공동체, “발산에서 미래를 꿈꾸다”	138
094	천안시 동남구청사 및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139
095	서울 금천구 민·관·학 협치를 통해 따뜻한 마을경제!	140
096	시흥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복원	141
097	논산시 동고동락(同苦同樂) 공동체 조성을 통한 마을복원 ..	142
098	서울 구로구 역사 내 유희공간, '복합문화공간'으로	143
099	천안시 시민이 디자인하는 문화도시	144
100	영덕군 청년로컬벤처의 확산, 지역에 스며드는 '청년마을' ..	145

발 간 사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를 당 강령의 전문에 포함하고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소득과 서비스를 제공해 최소가 아닌 기본적인 삶,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끔 하려는 정치적, 정책적 지향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심화된 민주주의와 정의 원칙으로 공동체를 가꾸며, 지속가능한 방식의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로 기본사회를 실현해 국민의 삶의 역량을 높여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1. 기본사회의 정의와 헌법적 기초

아직까지 기본사회(basic society)에 대해 합의된 개념이나 학계로부터 논의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정의합니다. 기본사회의 ‘기본적 삶’과 관련해, 이를 최소(minimum)의 의미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과 최소는 엄연히 다릅니다. 영어에서 최소는 가장 적은 양이나 최저 한도를 의미합니다. 즉, 그 밑으로는 의미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minimum wage)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료만을 뜻합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최저임금 이하로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본은 ‘다른 것의 발전이나 전개에 있어 근본적인 것’, 모두에게 있어 필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 기본법(Grundgesetz)에서 기본은 영어의 기초(ground)에 조응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basic human rights이지, minimum human rights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본은 근본적인 것(fundamental)의 의미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아닌 기본 임금(basic wage)이 있다면, 이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사회의 요소인 기본소득은 정의에서부터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기본사회가 보장하려는 기본적 삶은 생활을 위한 최소 수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삶을 의미합니다. ‘기본적 삶’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원은 제헌헌법의 헌법 정신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시행된 첫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인의 제헌의회는 1948년 6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격론을 거쳐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완성했습니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헌헌법은 전문과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행정·사법부의 구성과 권한 및 의무의 순으로 구성되는데 제6장은 경제로, 뒤이은 재정이나 지방자치, 헌법 개정 장보다 먼저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제 장의 첫 조항은 제84조로, 현재 10호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알려진 119조 2항의 원안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이는 제헌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사회정의의 원리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천명하는 동시에, 개인의 경제적 자유도 이러한 사회정의 실현의 전제 위에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것’에 대해, 헌법 제정을 주도한 유진오 전문위원은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 영향을 받아 사람으로서 먹고 입는 것 이상으로 최저 문화에 욕망을 취할 수 있는 삶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본적 수요의 충족이 단순히 생계유지가 아닌, 문화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의미한다는 근거입니다. 바이마르헌법에서 우리 제헌헌법의 제84조에 대응하는 조항은 제151조로,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자로 하여금 인간의 가치에 타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은 시작부터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사회정의이자 국가의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헌헌법이 제정될 당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사회국가(Social State) 원리가 우리 헌법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정신은 개헌을 거치며 점차 퇴색되었고, 1987년 개헌에서는 위의 제84조가 지금의 제119조로 대체되었습니다.¹⁾ 제헌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실현이자 먼저 제시되는 원칙이었으나, 현재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원칙으로, 기본적 삶의 수요 충족은 균등한 소득 분배로 축소되면서 예외로 밀려났습니다. 즉, 기본사회는 우리 헌법에서 퇴색된 사회정의 원칙인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되살려 실현하는 국가 운영 원리입니다.

2. 기본사회의 다섯 가지 가치

기본사회의 정의와 헌법적 기초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목표라면, 기본사회의 운영 원칙이자 가치는 첫째, 기본권, 둘째, 민주주의, 셋째, 공정과 정의, 넷째, 역량, 다섯 번째, 지속가능성의 다섯 가지입니다.

기본사회의 첫 번째 가치로 기본권 보장은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적인 방법이자 전제입니다. 즉,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려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만 합니다. 앞서 보았듯, 제헌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법 앞의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신체의 자유, 거주와 이전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교육권, 노동권, 청구권 등을 보장했습니다. 다만 이를 개별적 권리로 나열하였는데, 1969년 제7호 헌법에서는 법 앞의 평등에 앞서 제8조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1980년 9호 헌법의 제9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보다 명확히 기본권을 국가가 침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1987년 현재의 10호 헌법에서는 제34조에서 기본권의 확대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사회권을 규정하였습니다.²⁾ 관련된 국가의 의무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여성·노인·청소년

1) 현재 10호 헌법의 제119조는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 앞서 기본사회에 대한 제84조가 삭제된 원인으로, 해당 조항이 경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노동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전체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자 제34조로 옮긴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의 복지 향상, 장애 및 노령, 질병으로 인한 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의 생계 보장, 재난 및 재해 예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 규정은 여전히 취약계층이나 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언급으로, 잔여적 복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기본사회는 사회권의 증진 및 보장을 모든 국민에 대한 책무로 규정하고, 사회권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교육권, 환경권, 보건권을 충분하게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서 기본사회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는 민주적 헌정주의(democratic constitutionalism)이며, ‘기본적 인권과 사회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입니다.

* * *

앞서도 설명했듯, 현재 우리 헌법의 제10조에서는 기본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기본사회의 구현을 위해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의 범위와 내용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기본권의 역사적 변화는 기본권의 범위와 내용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규정되며, 기본권 실현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실천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본권을 규정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정치적 운영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자연권 사상이 싹튼 이후 존 로크(John Locke)는 정부의 구성에 앞서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불가침의 원리로 기본권을 강조하고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포함했습니다. 칸트(Immanuel Kant)는 기본권을 인류의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 법률 이전에 존재하는 도덕적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것이 미국 독립 선언서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며, 창조주로부터 일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명제와, 프랑스 인권선언문의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특히 인권선언문은 제1조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제2조에서 정치적 결사의 목적이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 동시에, 그러한 권리의

범위로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권 사상의 초기에는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치적 결사의 자유가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는 고전적 자유권이 기본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역시 기본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0세기에는 사회적 기본권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산업화 초기의 경제적 변화로 빈부격차와 노동 환경 악화가 심화되면서 사회보장, 교육, 노동권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바이마르헌법은 이를 규정한 상징적인 헌법이 되었습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우리의 제헌헌법 역시 이러한 바이마르헌법에 영향을 받아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집단적 권리와 연대권, 자기결정권, 발전권, 평화권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으며, 기후위기와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환경기본권과 디지털 권리 역시 미래의 기본권으로써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의 변천은 기본권이 정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공동체가 변화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이 중요합니다. 시민이 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써, 참여와 숙의를 통해 새로운 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의 범위와 내용,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심화된 민주주의는 기본사회의 정치적 운영 원리입니다.

* * *

기본권 사상이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권리적(당위적) 원칙이자 가치, 심화된 민주주의가 기본권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정치적 운영 원칙이자 가치를 나타낸다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방법론으로, 구체적인 수행 원칙을 구성합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의 범위와 내용을 정한다면, 정의론은 ‘그렇다면 이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기본사회를 위한 당위의 문제라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공정과 정의는 곧 분배와 자유의 문제입니다.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장하는 것이 기본사회 실현에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과 정의는 한국 사회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많은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벤담(Jeremy Bentham)이나 밀(John Stuart Mill)의 고전적 공리주의부터 최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로 이어지는 정의에 관한 이론들(theories of justice)을 일일이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이 발간사는 기본사회에 대한 소개이지, 정의론에 대한 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본사회가 생각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에 대해 설명하자면, 분배의 원칙이자 사회의 기본구조(basic structure of society)로,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공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배분을 정하는 방식에 관련됩니다.

잘 알려져 있듯, 롤즈(John Rawls)가 말하는 정의의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는 평등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사회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롤즈는 기본적 자유의 예시로 신체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상과 결사의 자유 등을 열거하였지만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 모든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권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즈의 제2원칙, 즉 차등 원칙에 따르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배분 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령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제1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기본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경제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관계없이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시장경제에서 역량과 운에 따른 불평등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최소 수혜자, 즉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서 그들의 기본적 삶을 개선하는 것은 보다 공정한 배분 규칙이자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길입니다.

기본사회에서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 나아가 방종이 아닌 한, 모든 자유가 최대화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자유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는 최대치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아픈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조차 기본적인 필요를 채움으로써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사고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본사회의 정의의 원칙이며, 실질적인 자유를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으로 실질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뒤이어 논의하는 네 번째 가치인 역량중심적 접근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공정과 정의가 기본적인 삶의 실현을 위해 기본적 삶에 필요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법의 가치라면, 사회와 개인에 대한 역량접근(capability approach)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삶의 실제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치입니다. 여기서 역량이란, 쉽게 말하면 개인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를 말합니다. 역량접근의 주창자인 센(Amartya Sen)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역량은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기능(역할)의 범위입니다. 사람이 제 기능을 한다(역할을 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사람의 기능은 글을 읽고 쓰기, 양치질 등 일상의 간단한 것부터 건강 유지,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 정치적 의사 표현 등 복잡한 것까지 다양하며, 운동하고 양치하는 것이 건강에 영향을 주고, 읽고 쓸 줄 알아야 의사를 잘 표현하는 점에서 많은 기능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기능에는 차이가 있으며, 사회가 개인의 기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읽고 쓰는 기능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기능 역시 어렵습니다. 읽고 쓸 수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면, 그만큼 그 사람의 기능범위(역량)은 제한됩니다. 만약 사회가 보편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대부분이 읽고 쓸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만큼 개인과 사회의 역량이 증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육을 제공하여 역량이 증진되어도 종교적, 문화적인 모종의 이유로 정치적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다면, 정치적 의사 표현의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역량이 제한됩니다. 이 점에서 삶은 다양한 기능이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며 이어지는 것입니다. 역량의 증대는 개인이 인생에 걸쳐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난다는 것은 실질적인 자유가 증진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역량의 증대는 이처럼 사회적 맥락에서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사회는 개인의 역량 증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은 단순히 경제성장률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실질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좌우됩니다. 그리고 기본사회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이러한 역량의 증진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발전을 달성합니다. 보편적 공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교육과 건강에 관한 국민의 기능들을 넓히고 역량을 높여줄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경제적 곤란을 해결해 시민이 자신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줍니다. 단순히 소득이 높아진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역량접근의 시각으로는,

각자가 인생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가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됩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질적 자유를 위한 기본적인 필요에 요구되는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가치라면, 역량접근은 공정하게 배분되는 자원이 활용되어 각자의 필요가 충족되고 사회가 발전하는 가치입니다.

* * *

지금까지의 네 가지 가치, 즉 기본사회 실현의 전제로써 기본권 사상, 기본권을 규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정치적 운영 원리의 가치인 민주주의, 기본권 실현의 구체적 배분 방법인 정의 원칙, 실현되는 기본적 삶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인 역량접근은 대체로 인간과 인간, 사회에 관한 가치이며 같은 세대 내의 원칙입니다. 반면 마지막 다섯 번째 가치인 지속가능성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 그리고 세대와 세대 간에 기본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³⁾ 물론, 앞의 네 가지 가치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나 세대 간 계약과 아무 관련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권의 범위에 환경권이나 지속가능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는 중요합니다. 현세대가 규정하는 기본권의 범위와 내용은 미래 세대의 기본권 논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사회가 증진하는 역량이 인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동·식물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것, 깨끗한 공기와 물을 향유하는 것 역시 핵심 역량으로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은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본사회의 세대를 넘는 지속을 위해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강조하는 가치입니다.

사회에 대한 지속가능 접근의 가장 단순한 원리는 크게 두 가지 명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왔듯, 기본적으로 사회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 소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초로 부를 수 있는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면 기아나 문맹과 같이 기본적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소비가 지속 가능한 한계를 넘어버린다면 기후변화나 환경 오염, 생물 다양성의 손실

3) 기본사회 원칙 중 지속가능성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고려하는 생태사회와 도넛 경제학(Doughnut Economics)과 관련 있습니다. 다만 환경이 반드시 생태환경이나 자연환경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가능성도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환경은 자연환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통상 주체를 둘러싼 외적인 요소를 통칭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우리 사회와 사회 외부의 관계로, 세대를 이어서 기본사회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으로 지속가능성을 강조합니다.

등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금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어 기본사회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시장에서 최적의 생산과 소비, 가격이 결정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데 충분하고도 남는 것을 넘어, 너무 많이 생산해 위기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폐의류입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에 약 8만 2,400톤의 폐의류가 만들어져 하루 평균 225톤이 버려졌습니다. 애덤 스미스조차 국부론에서 “옷을 사회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차려 입는 것이 기본적 삶의 요건”이라고 했지만, 하루에 225톤의 폐의류가 버려지는 것은 옷이 이미 기본적 삶을 충족하고도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누군가는 부끄럽게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이나 연령, 소득 같은 원인으로 ‘의류에 대한 접근성’이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배분 방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전자 기기도 너무 빨리 교체되며 전자 폐기물(e-waste)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접근권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전자 폐기물이 많이 쌓이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산하고 소비해야 하지만, 이것이 환경을 위협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기본적 삶을 침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현재 세대의 기본적 삶을 위해 후손의 기본적 삶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기본적 삶을 보장하도록 생산하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배와 복지로 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생산과 소비의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사회는 협력과 연대로 현재의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본권을 보장하려 합니다.

3. 기본사회의 세 가지 요소

앞서 논의한 기본사회의 다섯 가지 가치(혹은 원칙)는 기본사회가 운영되기 위한 일종의 규범입니다. 그 위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기본사회를 운영하는 요소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전통적인 소득보장제도, 사회서비스제도, 경제질서에 대응합니다.

기본소득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충분한 수준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기본소득이 기본사회에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기본권

을 보장하고 소득이 부족해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게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소득이 매달 보장된다면 당장 먹고살 길을 걱정하던 누군가는 주어진 돈으로 하고 싶었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악기를 연주해 자신의 재능을 펼쳐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의론의 원칙에서 얘기하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기회균등의 상황인 동시에, 역량중심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실질적 자유가 확대된, 발전된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소득의 효과는 이미 알래스카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국내의 성남시 청년배당에서도 유의미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우려와 달리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가 시간을 늘리고 자신의 교육에 투자해 숙련된 일자리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에 대한 의구심과 논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실현가능할까?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은 없을까? 등 많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렇지만 이 점을 고려해서 현실에서 기본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실험되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에서도 소개하겠지만, 청년이나 농민과 같이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지급하거나, 참여의 대가로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 등 여러 세부적인 내용을 바꾸어가며 이미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실적인 여건에 적합하면서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건과 범위에 상관 없이 실질적인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의 기본소득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로 노후의 불안정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하지 않는 청년도 급격하게 늘어 히키코모리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인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은, 우리의 소득보장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본소득은 취약한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 기본사회의 핵심 정책이 될 것입니다.

* * *

기본서비스는 필요가 있는 누구든 조건 없이 제공되는 교육, 보건·의료, 주거,

돌봄, 교통, 에너지 등의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기본소득과 같이 모두를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제공하지만, 필요에 따라,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합니다. 기본소득이 있는데 왜 기본서비스가 필요한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마다의 필요나 욕구는 다양해서, 기본소득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과 달리 지급 받은 소득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시장에서 알아서 각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정부, 비영리단체(NGO) 등에서 제공받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는 모두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삶에서 실질적 자유를 달성케 하는 기본사회의 목적에서는 같지만, 운영 원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반면, 기본서비스는 상호 연대와 협력에 기초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본서비스는 한국의 공교육,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HS), 북유럽 복지국가의 공적 돌봄 체계입니다. 이러한 기본서비스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이미 여러 번 증명되었습니다. OECD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던 원동력으로 높은 교육열과 모두에게 보장된 보편적 학습권, 이를 통한 대규모 인적자본 투자를 꼽았습니다.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는 보편적인 의료 접근권을 보장해 낮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이 심각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기본서비스는 취약한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여 불평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이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기초를 만듭니다.

우리 사회서비스는 지역과 계층 간의 격차가 너무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병원 방문의 90%가 60분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전남에서는 절반 정도만이 60분 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원 내륙이나 전남 도서 지역의 가정에서 어린이집까지 걸리는 시간은 서울의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2배에 이릅니다. 이런 전통적인 사회서비스 영역 외에, 교통과 주거의 지역 간 격차 역시 큼니다. 이러한 소득, 격차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권을 해결하고,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사회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 *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경제, 사회적기업 등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달리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경제주체를 통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경제활동의 효용 역시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경제 형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주체도 이

운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위해 운영하는 점에서 민간 기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 방식도 기업의 오너나 최고경영자의 의사가 아니라 구성원 간의 민주적 운영 원리를 채택해 운영됩니다.

사회적경제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이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간 불평등입니다. 특히나 일자리의 지역 간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이 밀집된 수도권으로 집중되며 수도권에서만 고용이 창출되고 청년이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조세 혜택이나 보조금을 내걸지만,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혜택을 받지 않고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와 인구의 집중은 시장경제 원리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더라도, 수익이 되지 않으면 기업이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재화, 즉 가치재(merit goods)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돌봄이 대표적인 가치재입니다. 돌봄 노동은 기계로 대체하기도 어렵고 손이 많이 가면서, 돌봄 받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특별한 숙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가치가 낮습니다. 그렇기에 공공 돌봄이 취약하고 민간업체가 많은 우리 돌봄 시장은 서비스 품질이 낮고, 필요한 이에게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속가능성입니다. 앞서 기본사회의 운영 원리로 세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협하는 사례로 폐의류와 전자폐기물을 들었는데, 결국 폐의류와 전자폐기물이 많이 생산되는 이유는 기업의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문제를 교정합니다. 지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을 끌어들이습니다. 이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게끔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면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례집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지역의 사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불균하게 배분되고 있는 자원을 모두에게 기본적인 수준으로 보장하게끔 하면서, 이러한 기본사회의 원리가 세대를 넘어 지속되게끔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 *

지금까지 논의하였듯,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는 기본권과 민주주의, 정의의 원칙, 역량과 지속가능성의 다섯 가지 가치 위에 기본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작동하는 구체적인 운영 요소(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통적인 경제질서와 근로-복지 체제의 한계, 즉 모두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제도들입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가 기존 사회의 소득보장제도, 사회서비스 정책의 대안이라면, 사회적경제는 기존 경제질서의 대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요소가 기존의 경제질서와 근로복지체제를 일거에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가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이를 대체한다면, 사회적경제 역시 기존 시장경제 질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점증주의적 접근을 통해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사례집의 구성과 요지

민주연구원은 이러한 기본사회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사회 지역정책 사례집 발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본사회 지역정책 사례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는 각 지역의 우수 정책과 사업을 수집, 선별하여 각 영역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실었습니다. 각 정책의 사업 목적과 주요 내용, 성과와 기대효과, 다른 유사 사업 사례를 실어 지방정부 단체장과 정책 실무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 *

1장의 ‘기본소득’은 앞서도 밝혔지만, 모든 주민 또는 일부(청년, 농민, 노인 등)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의미합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무조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실제 여러 나라의 기본소득 실험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실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농민소득과 같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참여소득처럼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보는데 이는 지금 당장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사례집에도 ‘현실에서의’ 다양한 실제 기본소득 사례를 담았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농민기본소득, 제주의 장수수당, 부산 동구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등입니다. 본 사례집의 사례 외에도 영광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등 비슷한 사례가 많으며, 지역의 인구 구성과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서비스 영역은 다양하지만, 본 사례집에서는 ① 기본돌봄 ② 기본에너지 ③ 기본교육 ④ 기본주거 ⑤ 기본교통 ⑥ 기본금융 ⑦ 기본의료 ⑧ 기본일자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서비스의 영역은 향후 계속 사례를 수집하면서 논의를 거쳐 확대될 것입니다.

2장의 ‘기본돌봄’은 (필요한) 모든 주민에게 생애주기별 필요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거나 접근성을 높이는 일련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생애주기별로 돌봄의 대상과 내용은 달라집니다. 임신부와 영·유아를 위한 돌봄서비스로는 육아기본수당,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산후조리비 등이 있습니다. 해남군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단순히 돌봄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유도해 가정의 ‘같이 돌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을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는 서비스는 혁신기술을 돌봄 영역에 제공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 외에 어르신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공공급식 연계사업이나 로컬푸드를 활용한 농산물 지원도 기존의 불충분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수요자의 선택을 다양화하는 기본돌봄서비스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3장의 ‘기본에너지’는 시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에너지 생산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기본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고속도로나 RE100과 같이, 전력 생산에 있어 재생에너지를 주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의 에너지 생산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이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생산과 소비의 결실을 다 같이 누리는 것이 기본에너지의 핵심입니다. 이는 알래스카 공유배당이나 19세기 헨리조지(Henry George)의 토지배당 논의와 같이 모든 시민이 자원에 대한 공동권리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그 결과 역시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기본에너지 사례는 여주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와 신안군 햇빛바람연금입니다. 두 곳 모두 지역 여건을 고려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

고, 에너지 발전 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본 사례집에 수록한 사례는 국가·지역 단위에서 추진되는 신규사업 중 기존 산업시설을 친환경 산업시설로 전환하거나 주민에게 에너지를 낮은 가격으로 부족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았습니다.

4장의 ‘기본교육’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보편적 평생학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 기본서비스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성과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 역시 있습니다.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도 크고 작은 비용 부담이 학생에게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기본교육은 이러한 교육의 기회 격차를 줄여 모든 청소년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각자 역량에 따라 경쟁하게 합니다. 진로지원비나 무상급식, 교복구입비, 졸업앨범비는 일견 작아보일 수 있지만, 취약계층의 학생이 주눅들지 않고 공부하여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교육이 청소년기 정규 교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수명 연장과 생애주기 변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평생직장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일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개인은 평생에 걸쳐 배우고 자신이 습득한 기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 자유를 위한 역량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기본교육은 평생에 걸쳐 시민이 계속해서 배우고 자신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서비스 역시 포함합니다. 본서에서 제시하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는 장애여부에 관계 없이, 경기도 화성시의 평생 장학금은 성인이 되어도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본교육 서비스 사례입니다.

5장의 ‘기본주거’는 공공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정책으로 전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전국 단위의 중앙 정부 사업에서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보편적 주거 기본서비스가 되겠지만, 지역에서도 지역의 실정에 따라 여러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의 보린주택은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수요에 맞춰 홀몸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지만, 동시에 공동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독사 방지와 상호 안부 확인,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 주거 플랫폼인 따복기숙사 역시 청년 공동체 문화 형성을 도우면서, 기존의 주거시설을 리모델링해 비용을 절감한 획

기적인 주거 서비스 사례입니다.

6장의 ‘기본교통’은 모든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 대중교통을 공급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은 이미 대중교통을 기본서비스로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통이아말로 지역별 서비스 제공 수준의 격차가 가장 큰 분야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운영할 수익성이 없어 노선이 폐지되거나 감차가 이루어지고, 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자가용을 타며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와 같이 무상교통 서비스를 추진하는 곳도 있고, 청송군도 농어촌버스를 무료화했습니다. 지역별 불균일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수요응답형 버스인 톡버스를 운영하는데 이는 IT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혁신적인 정책사례입니다. 물론 톡버스와 같은 운영사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초기 투자 비용이 수반되는데, 고흥군에서 장날이나 공중목욕장 운영일에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나 파주시 천원택시는 적은 투자 비용으로 서비스 체감을 높이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7장의 ‘기본금융’은 금융시스템에 대해 주민의 차별 없는 접근 및 이용, 신용 거래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기본금융서비스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인데, 이는 저소득층을 비롯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 소규모 대출을 제공,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도 미소금융이나 사회연대은행처럼 민간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의 특성상 지방정부가 민간 은행과 같은 대출을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경기도의 청년기본대출처럼 시중 은행과 협업하여 청년에게 저리로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공공부분 기본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시일 것입니다. 특히 공공의 특성상, 비교적 명확한 정책 집단에게 기본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영주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역들은 신혼부부에게 목적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장의 ‘기본의료’는 모든 시민이 어떠한 질병이든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일련의 서비스 정책입니다. 의료 역시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큰 영역입니다. 이에 지방정부 별로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지금도 다양하게 실행 중입니다. 기본의료 사례는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이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처럼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이 많으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례 역시 있습니다. 의료협동조합은 단순히 사후적 치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해 예방중심 의료로, 복지 기능까지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실천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고령화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기존 공공 의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역 의료 서비스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9장의 ‘기본일자리’는 취업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거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고용지원 서비스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장년 대상 인생 이모작 사업이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중앙정부의 고용지원 서비스가 있지만, 접근성과 정보 공유 측면에서 지역에서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중앙의 공공근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 사례집에 소개된 사례들은 이러한 틀을 벗어나 지역의 자원을 일자리와 결합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하동군의 ‘놀루와’ 협동조합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동시장에서 더욱 취약한 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광주 광산구의 공동체 복지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마을기업 ‘아기쏘잉’도 눈에 띕니다.

10장의 ‘공유경제’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사회가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확장하여, 기본사회의 공유경제는 공유를 통해 공동체 자원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총칭합니다. 이 점에서 지역 정책 사례집의 공유경제 영역은 상당 부분 사회적경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민주적 운영으로 공동체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합니다. 본 사례집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담은 동시에,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데이터 배당, 게임리소스 공유 등 지역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례 역시 포함하였습니다.

민주연구원은 현재도 지역사회에서 실천중인 기본사회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

니다. 현재 100개 과제로 구성된 이 사례집은 추후 지속적인 검토와 업데이트를 거쳐 더 확대될 것입니다. 이 사례집을 활용해 지방정부 단체장과 정책 실무자는 자신의 지역에 적합한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켜 지역에서부터 기본사회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정책과 사업을 지역에서 실천하고 중앙정부와 당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기본사회는 멀리 있는 미래나 공상이 아닌 우리 국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본사회의 실현은 아직까지 세계 어떤 국가도 도전해 보지 않은 과제입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나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HS)와 같이 부분적으로 기본사회 요소를 실현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기본사회를 시도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성공모델을 만들고 증명하여 세계 속에서 선도해 갈 것입니다. 그 길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지방정부가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연구원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제시, 정책 연구개발, 의제 설정과 이슈 분석,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 개발 등 당에 핵심 정책과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사회 지역정책 사례집 발간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사회 연구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주연구원은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지방정부와 공유하여 하루빨리 기본사회가 우리 삶에 안착하고 새로운 한국의 사회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민주연구원 원장
이한주

1

기본 소득

모든 주민 또는
일부(청년·농민·노인 등)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사회활동 촉진,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단, 성남시는 조례 폐지, 의정부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주민등록 초본 주소가 성남시, 의정부시인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세부내용

- 분기별 신청자 대상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소요예산 : 2024년 1,397억원(도비 70%, 시·군비 3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도입 이후 신청률 지속적으로 확대

- 2019년 1분기 신청률 71%에서 2023년 2분기 91.4%로 20%p가량 증가
- 2019년 경기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수급자의 8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답변

• 청년의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행복도 증가

- 2021년 경기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청년기본소득 지급 후 행복도(5.6→6.0)와 건강생활 점수(2.9→3.1)가 증가했으며, 다른 시·도 비교집단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임
- 평등사회에 대한 인식, 증세에 대한 태도 등 복지 전반 인식 역시 증가하고 청년기본소득 수령으로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어 주당노동시간 역시 증가

유사사업 사례

• 성남시 청년배당, 전남 영광군, 영암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등

- 성남시는 2016년 1월부터 2023년까지 만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 영광군은 만 18세~45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노동자, 사업자에게 3년간 월 10만원씩 매칭 적립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
- 가족 농민의 공동체 활동 촉진 등을 통한 농업·농촌의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경기도 내 사업 실시 시·군에 거주하는 농민

- 사업대상 시·군 : 여주, 안성 등 23개 시군
-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3년)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 활동에 종사
- 소득기준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세부내용

- 지역화폐 월 5만원, 연 최대 60만원을 매년 6월, 12월에 나누어 지급

• 소요예산 : 2024년 1,345억원(도비 50%, 시·군비 5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시행시·군 및 지원대상 점진적 확대

- 시행시·군 : '21년 6개 시·군 → '22년 17개 → '23년 21개 → '24년 23개 시·군
- 지원대상 : '21년 9.2만 명 → '22년 17.8만 명 → '23년 21.2만 명 → '24년 21.9만 명

• 기대효과

-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농업·농촌의 신규 인구 유입 증대 등에 따른 고령화 방지 및 소멸 위기 극복

유사사업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충북 농어업인 공익수당, 울산광역시 농업인 공익수당,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옥천군 청년농업인 영농자제 바우처 지원사업, 강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등이 시행 중

- 제주특별자치도는 '23년부터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전업 농민 대상 연 40만원 지역화폐 지급
- 광주광역시시는 '23년부터 1년 이상 거주 농가당 연 60만원 광주상생카드로 지급
- 영암군은 '19년부터 군내 1년 이상 거주한 농·림·어업인에게 영암사랑상품권 지급('23년 기준 60만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경로 호전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가계 부담 경감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노인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세부내용
 - 지급금액 : 매월 25,000원
- 소요예산 : 2023년 92.4억원(제주시 60.6억원, 서귀포시 31.8억원 시비 10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연도별 추진 실적
 - 2004년 이후 지속 사업
 - 2011년 조례 개정으로 기존 월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인상
 - 2023년 기준 도내 약 3만 800명 노인에게 지급
- 기대효과
 - 소득이 불안정한 노인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
 - 생활 반경이 대체로 관내에 해당하는 노인의 특성상 도내 지역 경제에도 일정한 기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유사사업 사례

-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서울시 구로구, 광진구, 충북 청양군, 청주시, 옥천군, 제천군, 보은군, 경기 화성시, 안산시, 파주시, 연천군, 하남시, 이천시, 안양시, 포천군, 충남 계룡시, 경남 함안군, 전남 구례군 등에서 장수수당 사업을 지원
 -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월 25,000원 ~ 50,000원 내외로 지원
 -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7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음. 청양군의 경우 연령 기준이 아닌 출생년도 기준으로 1930년 이전 출생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어르신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 어르신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지원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5세 이상 어르신(2023년 말 기준 11,039명)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세부내용
 - 지급방식 :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지역화폐(e바우체)로 선불 충전 지급
 - 사용기한 : 충전 월로부터 12개월까지, 잔액은 자동 소멸
 - 사용처 : 동구 내 목욕탕 및 이발·미용업소
- 소요예산 : 2024년 21.6억원(구비 10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연도별 추진 실적
 - 2018년 지급률 78.1%, 사용률 56.6%에서 2023년 지급률 92.6%, 사용률 90.1% 달성
- 기대효과
 - 어르신의 미용, 건강을 위한 지출 부담 감소에 기여
 - 목욕 비용 지원으로 위생상태 및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

유사사업 사례

- 인천 동구, 울산 울주군, 충남 아산시, 부여군, 경기 여주시, 하남시, 안산시, 안성시, 광명시, 강원 횡성군, 고성군, 정선군, 강릉시, 충남 예산시, 계룡시, 당진군, 홍성군, 금산시, 전북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고창군, 진안군, 전남 목포시, 나주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경북 영양시, 울릉군, 울진군, 경남 함양군, 산청시, 통영시 등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 시행 중
- 인천시 동구 : 현물 및 지역화폐로 지원
- 울산 울주군, 충남 아산시, 충남 부여군, 경남 함양군 : 바우처로 용처 한정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결혼 예정 부부의 결혼예식장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젊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 감소
-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 복리증진 기여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하는 당사자 또는 혼주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세부내용
 - 지급금액 :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 소요예산 : 2023년 3,800만원(군비 10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연도별 추진 실적

- 연도별 예산액 : 2019년 5,000만원, 2020년 1,800만원, 2021년 4,000만원, 2022년 3,900만원, 2023년 3,800만원
- 2019년 도입시 5건을 지원한 이후 2020년 COVID-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해당년도는 18건) 매년 40여건 내외의 결혼을 지원

• 기대효과

- 지원 대상이 괴산군에 주민등록한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이므로, 성장 후 외지에서 생활하였더라도 괴산군에서 결혼을 하게끔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결혼 당사자의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유사사업 사례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은 없으나 울산 울주군 등은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을 시행 중

- 예식공간 및 웨딩 패키지 서비스를 위탁업체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결혼 비용 절감과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

2

기본 돌봄

모든 주민에게 생애주기별
(임산부 · 영유아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필요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거나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 및 지역사회 성장 동력 확보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 선제적 대응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강원도 내 출생아
 - 2019. 1. 1. 출생아부터,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세부내용
 - 출생시부터 95개월 간 1인당 월 10~50만원 지급
 - 영아수당(0세 30만원), 가정양육수당(1세 15만원, 2세 이상 10만원), 아동수당(10만원) 별도 지원
- 소요예산 : 2023년 약 2,807억원(도비 40%, 시·군비 6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육아수당 지급은 실제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
 - 강원연구원 보고서 및 육아수당 관련 연구에 의하면 2018년 이전까지 강원도와 다른 시·도 지역의 출산율 감소 경향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8년 이후 강원도 합계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였고, 유배우 출산율은 큰 폭으로 증가함.
 - 2019년 이후 강원도 유배우 출산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14~20% 더 높아졌으며 이는 육아기본수당의 효과일 것으로 판단됨.

유사사업 사례

- 전남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전북 정읍시 육아수당, 전남 영광군 양육비 지원 등
 - 강진군은 2022. 1.1. 출생아부터 월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정읍시는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0~59개월 영·유아에게 10만원 지급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나주시 내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부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 입양일 기준 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포함(입양아는 12개월 미만 영아로 시 이외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5년 단위)
- 세부내용
 - 출산장려금(현금) :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 쌍태아 이상인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 소요예산 : 2024년 약 12.9억원, 2019~2023 5개년 67.4억(시비 10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육아수당 지급은 실제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
 -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기대
 - 지역 인구 유입 및 인구 증가, 경제활성화에도 일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유사사업 사례

- 인천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부산 남구, 수영구, 대전 중구, 동구, 광주 광산구, 동구, 남구, 경기 여주시, 군포시, 하남시, 광주시, 강원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홍천군, 양양군, 충북 괴산군, 충남 당진시,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경북 포항시, 칠곡군, 청송군, 의성군, 고령군, 김천시, 경산시, 경남 밀양시,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전북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무주군, 전남 순천시, 광양시, 장흥군, 신안군, 고흥군 등에서 출산장려금 사업 실시
 - 지역에 따라 1회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구
-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 세부내용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
 - 가구당 최대 5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사업(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과 별도로 지급받음.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 소요예산 : 2023년 약 22.5억원(도비 70%, 시비 3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연도별 실적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원대상 (명)	6,753	6,464	6,569	6,674	6,178	5,626	5,208	4,494

- 사업개시 이후 매년 6천명 가량을 지원하였으나, 2021년 이후에는 COVID-19로 인한 출산 건수 감소로 지원 대상이 감소.
- 향후 지원대상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대효과
 - 산모의 90%가량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평균 377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실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유사사업 사례

- 서울시, 부산시 남구 및 기장군, 울산시, 인천 남동구, 경기도, 의왕시, 시흥시, 양평군, 충북 옥천군, 당진군, 괴산군, 경북 칠곡군, 고령군, 경남 합천시, 통영시, 의령군, 사천시, 영주군, 창원시, 전북 부안군, 임실군, 군산시, 전남 순천시, 광양시, 해남군, 강진군, 강원 춘천시, 평창군 등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 제공유형(현금 혹은 지역화폐), 지원 주기 등에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지자체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
 - 서울 서대문구, 양양군, 강진군 등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이용료 지원사업 시행 중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첫째아부터 확대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심 임신·출산환경 조성에 기여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세부내용
 - 첫째아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 추가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 가격의 90%를 지원
 - 가정방문 산모신생아 도우미 활동 지원
- 소요예산 : 2023년 5억7,700만원(도비 10%, 시비 9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가정에 총 14억 5천만원 가량 지원
 - 2019년 약 1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2.8억원, 2021년 5.3억원 등 매년 지원 금액을 늘려가고 있음.
- 기대효과
 - 지원 규모 증가에 따라 순천시 신생아 출산률 상승에 긍정적 기여
 -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따라 육아 환경 개선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유사사업 사례

-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종시, 대구 군위군, 달성군, 광주 서구, 충남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공주시, 아산시, 보령군, 부여군, 충북 진천군, 경남 함안군, 전남 영광군 등에서 사업 시행
 - 대체로 본인 부담금의 90% 선까지 지원
 - 진천군, 인천시 동구, 밀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바우처와 현금지급을 병행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남성근로자 보육 참여 유도로 공동 보육 분위기 조성

주요내용

- 사업대상 : 해남군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근로자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에 적합한 남성 육아휴직자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세부내용
 - 선정기준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급금액 : 월 5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기존 3개월 지원에서 조례 개정 중)
- 소요예산 : 2023년 1,050만원(군비 10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연도별 추진 실적
 - 연도별 예산액 : 2022년 1,200만원, 2023년 1,050만원, 2024년 1,500만원
 - 연도별 군 남성 근로자 중 7~8명 내외 지원
- 기대효과
 - 남성근로자 보육 참여 유도로 가정 내의 공동 보육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 휴직 기간의 소득 일부를 보전하여 양육기 가정 경제 부담을 완화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젊은 인구의 역내 유입 기대

유사사업 사례

- 서울시 서대문구, 부산시 수영구, 인천시 연수구 및 남동구, 서구, 동구, 계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 충남 아산시, 천안시, 전남 해남군, 경남 거창군 거제시 등 전국 16여개 지자체에서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 시행 중
 - 대체로 월 30~50만원 내외의 현금으로 지원하며, 6개월~1년 등 지원기간은 다양함
 - 아산시, 세종시 등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임신, 출산을 축하함으로써 출생친화적 분위기 조성
 -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용품 지원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관내 5개월 이상 임산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출산일로부터 2개월까지 신청 가능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세부내용
 - 20만원 상당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 아기띠, 신생아 출산세트(의류) 중 택1하여 지원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관내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인구 유입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유사사업 사례

- 서울 동대문구, 도봉구, 동작구, 부산 영도구, 기장군, 인천 부평구, 동구, 광주 서구, 울산 북구, 울주군, 남구, 경기 오산시, 안산시, 강원 삼척시, 충남 청양군, 논산시, 경북 경산시, 문경시, 경남 진주시, 통영시, 함양군, 사천시, 전북 완주군, 남원시, 전남 나주시, 영광군, 장성군 등에서 동일한 사업을 시행 중
- 도봉구, 진주시 등은 현금 형태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을, 부평구와 영광군 등은 지역화폐 내지 실물 바우처 형태로 축하용품 구입을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인공지능 스피커와 홈 사물 인터넷을 연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긴급상황 발생시 구조 요청 포함)
 - 인공지능 대화, 음악, 정보제공, 지자체 공지사항 전달 등 다양한 일상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수혜자의 사용패턴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추가 서비스 수요 등 발굴
- 현장에서 돌봄서비스 운영을 모니터링하는 '케어매니저'를 지역주민 중 채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 해당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시장 확대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2019년 서울 성동구,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서대문구, 중구, 경기 화성시, 대전 서구 등의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시작

● 세부내용

- (지자체) 서비스 대상자 선정 지원
-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 통합모니터링 지원 및 데이터 분석·공유, 케어매니저 고용 및 관리
- (SK텔레콤) AI·빅데이터 등 기술지원,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효과성 검토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사업 이후 24시간 위기신호 관제, 전문 심리상담 연계 등의 서비스를 통해 2023년까지 긴급 SOS 구조 600여 건, 돌봄 심리상담 연계 900여 건 등 어르신 돌봄의 성과를 기록
 - 서울 성동구(2019~) : 1만 8822건 안부확인, 218건 심리상담 연계, 312건 긴급 SOS 서비스 제공(119 연계 및 현장 구조 36건)
 - 현재까지 전국 120여개 지자체 및 전문 돌봄 기관들과 취약계층 4만 8000여 가구에 도입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국내 노인인구와 노인 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해 23년말 기준 총인구의 27.2%인 1395만명. 총가구의 35.6%인 775만 가구로 경로당 중식사업 정책 추진으로 식사문제의 지역거점 공급환경 변화
-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 감소추세이며, 4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는 급식공급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지역 내 공공급식센터 등

• 사업기간 : 2024년 신규사업

• 세부내용

-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 각 2곳씩 지역거점 공공급식 제공 시범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급식 지원 모델 구축
- 전국 경로당 68천여 개소, '24년 예산 80,003백만원으로 경로당의 경제규모를 고려
 - 현재 경로당은 월 50만원 운영비, 기초단체 약 30만원 지원금, 개인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로당이 개별적으로 준비할 시 맛과 영양을 고려한 공급에 어려움이 있음한 연합운영으로 거점 식사 제공 센터의 전문적인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합리화
- 노인일자리 내용을 단순화, 명확화
 -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선발하는 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급식조리업무의 근무 환경 및 강도 고려 매일 위생과 영양을 보장하거나 제조 역할에 어려움이 있음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시범사업을 통해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안정적 먹거리돌봄 모델 구축
- 지역거점 공공급식 센터 급식 제조를 통해 식단의 품질 향상과 철저한 위생관리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결식아동에게 아동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은 편의점과 마트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가공된 식품을 섭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대안 모색
 -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조사 결과, 편의점 사용 비율이 약 42%로 조사됨
- 불안정한 식습관이 형성된 아동은 개인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삶과 국가적으로는 더 큰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것임에 따라 이에 따른 대안 모색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결식아동 및 급식업체 등

• 사업기간 : 2024년 신규사업

• 세부내용

- 결식아동급식 실온도시락 공급비율 상향_주3회(특히 주말과 휴일 포함)으로 도시락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엄마의 정성으로 만든 실온 도시락 제공

〈 개선 대안 〉

제공		월 ~ 목	금 ~ 일	특이사항
학기중	석식	도시락	카드	주 2회 특식
	중식	학교(교육청)		
	조식	카드	밀반찬, 과일(영양꾸러미)	
제공		월 ~ 목	금 ~ 일	특이사항
방학중	석식	도시락	카드	주 2회 특식
	중식	월,화,수 - 도시락	목~금 - 카드	
	조식	카드	밀반찬, 과일(영양꾸러미)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아동에게 필요한 건강식 제공 및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급식 민관협력 모델 개발을 통한 결식아동 및 노인 등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일자리 창출
 -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주요 품목별 외식비 물가수준 및 물사 상승률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도 결식아동 급식최저단가를 9,500원으로 결정(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2024.7.26.)
 - 반면 노인대상 도시락 포장 및 배달은 기초단체별 단가가 상이하며 낮은 수준(4,000원~5,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자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결식아동, 노인, 급식업체 등
- 사업기간 : 2024년 신규사업
- 세부내용
 - 지역거점 공공급식 민관 협력 모델 구축

구분	내용
중앙정부 기초단체	자활센터,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찾아가는 주민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복지수요 파악
민간 기업	대기업 사회공헌 연계 부족한 시설(지역거점 공공급식 센터, 스마트팜 등)을 설치하고, 도시락을 공급하는 사업단 구성 및 운영 친환경 식재료 안정적 공급
공공급식 제조기업	아동, 어르신 등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식단개발 급식(도시락 및 밑반찬 등) 제조 및 안정적 공급

〈 민관협력 사례 〉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2005년 서귀포 부실도시락, 군산 건빵도시락으로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공공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 일자리창출 저소득층 자립지원 (기업) 초기 시설 및 사업비 지원 (NGO) 사업운영 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 29개의 도시락센터를 전국에 설립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다양한 먹거리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먹거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제도 마련
- 자율과 창의, 융합이 생명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세대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놀이문화 교육 지원
- 육아 및 교육관련 사회서비스 제공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문제 해결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광산구민 및 경력단절여성 등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세부내용:

- 양육관련 전문가 양성 및 신직업 창출 연계
 - 병원아동보호사, 그림책 교육지도사 및 영유아수면 컨설턴트 양성 등
 - 전문 일자리 창직 및 일자리 연계 지원
- 사회보장서비스 신설 및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지원
 - 마을교육기관 등에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
 - 병원아동돌봄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 일자리 유지 지원
-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협력시스템 구축
 - 아이키우기 좋은마을 운동본부와 연계한 공익일자리 포럼 지속 개최
 - 주민니즈 반영을 위한 일자리 모델 지속 발굴
 - 관내 교육보육시설, 병원, 기업, 단체 협약을 통한 기금 및 자립기반 지원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육아 및 교육 관련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아이키우기 좋은마을 광산운동본부 출범으로 민간이 연대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협력사업 모델 제시 가능
- 전문가 양성교육 및 여성 친화형 신직업 창출
 - 병원아동보호사 : 70명 교육, 67명 수료, 47명 취업(병원아동보호사 활동 36명)
 - 교육전문가 : 심화교육 652명 수료(강사활동 146명, 재능나눔활동 153명)
- 일자리 지역협력시스템 구축
 - 일자리포럼, 취업지원컨설팅, 일자리간담회 개최 등
 - 지역아동병원, 보육교육기관, 지역기업 협력시스템 구축
- 여성일자리 정착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및 육성기금 조성 지원 : 2,490만원
- 맞벌이 부부 및 근로여성을 위한 육아긴급지원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아이와 학생이 떠나는 도시에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중점에 두고 산후조리원부터 대학등록금까지 시설 및 비용, 서비스까지 폭넓은 각종 지원정책 수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 : 화천군 주민 등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2015. 화천군, 전국 최초 ‘교육 + 복지’ 결합의 교육복지과 신설
- 2017.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중 장기 계획수립 및 TF 구성 조례 제정
- 결혼·임산·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전 생애 등 5개 분야 123개 사업에 10년간 2,500억원 투자

• 세부내용: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대상 조리원 비용 전액(180만원)을 지원
- 지자체 주도로 초등 온종일 돌봄시설 ‘커뮤니티센터’를 개설·운영하며, 초등 저학년의 온종일 돌봄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까지의 학습 및 방과 후 수업공간을 지원
 - 월 2만원에 원어민 영어교육, 각종 특별활동 등 질 좋은 교육 지원
-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교통비 전액 지원, 아동들을 위한 스마트 안심셔틀 운영
- 지역 대학생 대상 등록금과 학자금 전액 지원, 월50만원 한도 내 거주비(월세) 지원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돌봄과 교육 전반의 최적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을 실현하면서 진학 등의 이유로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지역 유출을 막으며, 지역의 출산율 반등을 모색
 - 2022년 합계출산율 1.4명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0.2명 상승 (전국 평균 2배 규모)

유사사업 사례

• 영광군

- 기금 100억원 조성으로 지역기업 취업 청년 지원과 함께 결혼 장려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첫 아이 양육비 5백만원, 둘째 1천2백만원, 셋째부터 3천만원 지원, 공공 산후조리원 및 공동육아 지원

• 청양군

- 충남 청양군은 지역 황폐화의 골칫거리인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강화군 내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중 여성가족부 사업, 인천시 사업 대상 제외자
 - 여성가족부, 인천시 사업 대상인 저소득·차상위, 한부모 계층을 제외한 여성청소년을 지원하여 보편적인 기본 건강권 보장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세부내용
 - 월 13,000원씩 보건위생용품 구매 바우처 지급(인천e음 카드에 충전)
 - 위생용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산 제어
- 소요예산 : 2023년 2,700만원(시비 50%, 군비 5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2022년 1인당 월 12,000원에서 2023년 월 13,000원으로 지원 수준 인상
 - 연도별 약 180명 내외의 여성청소년 지원
- 기대효과
 - 2020년 위생용품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청소년 응답자의 75%가 위생용품 비용이 부담되어 구매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월 약 14,000~15,000원의 비용이 필요한 점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장 효과가 있음.
 - 동 조사에서 위생용품 무상지급 조례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97.3%로 나타나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판단됨.

유사사업 사례

- 서울시, 경상북도, 부산시 동구, 장수군, 광명시, 김제군, 영동군 등 위생용품 지원 사업
 - 전북 장수군은 분기별 3개월분 현물(34,500원 상당)로 지원
 - 서울시, 전북 김제시, 충남 서천군 등은 저소득층 대상 지역화폐, 바우처 형태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아이를 갖고 싶으나 난임으로 고민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 의지 제고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 영위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순천시 내 거주중인 난임진단 부부

- 소득 및 연령기준 없으며 사실혼 포함 지원
- 지원제외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및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 기타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종료된, 순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부부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5년 단위 사업)

• 세부내용

- 진단 지원 : 난임 진단 검사비 본인부담금(일부, 전액) 및 비급여 항목, 부부합산 2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 시술 지원 : 신선배아 최대 25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인공수정 최대 35만원 최대 2회 지원

• 소요예산 : 2024년 2.9억원(도비 75%, 시비 25%)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연간 8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 책정

• 기대효과

-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의지 제고 및 가정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유사사업 사례

-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안산시, 구리시, 광명시, 용인시,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보령시, 전북 익산시, 군산시, 전남 목포시, 순천시, 화순군, 영광군, 완도군, 함평군, 여수시, 남원시,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강원 양구군, 춘천시, 합천군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진행
- 경남, 부산, 대구, 인천 등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지원
- 울산 울주군, 강원 홍천군 등은 난임부부의 교통비 지원(1회성)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의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체계 확립
-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
-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인식 제고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세부내용
 - 연 24만원 수준의 친환경농산물 제공(보조금 80%, 자비부담 20%)
- 소요예산 : 2023년 8.4억원(도비 10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2019년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2020~2022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 도내 임신부 3,50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원

● 기대효과

- 임신부 및 자녀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식료품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가계 경제적 부담 완화

유사사업 사례

- 경북 상주시의 유치원 급식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등이 있으나 임신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아직까지 거의 없음
- 상주시는 관내 유치원생에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현물 지원
- 강원도는 6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횡성, 평창, 화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만65세 이상 단독노인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현물 형태로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육아비용 경감
- 영유아와 가족의 건전한 놀이 활동 지원을 통하여 영유아의 총체적 발달 도모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인천시 시민 또는 인천시 소재 근무자의 취학 전 자녀를 둔 가정

- 취학유예자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이 있는 가정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세부내용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여점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장난감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
- 연령별(3~23개월, 24~35개월, 36개월 이상) 신체, 언어, 사회·표현, 조작·탐구 관련 장난감과 육아잡지, 부모도서, 창작, 수학, 인물, 영어, 명작, 전래, 자연과학 동화, 영상자료 및 음반 등을 대여
- 소요예산 : 2023년 38.1억원(시비 40%, 구·군비 6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 실적

- 2008년 5월 장난감월드 1호점 개관(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점)
- 2009년 2~5호점 개관 및 2010년 포스코건설과의 업무협약으로 운영기금 출연, 7개 지점 동시 개관, 2022년까지 20호점 개관
- 2024년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동의 가정은 취학 여부 관계 없이 12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 확대

• 기대효과

- 인천시민 및 인천소재 직장인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 역할
- 장난감 무료 대여로 육아용품 지출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장난감월드 운영 인력 채용으로 고용 창출

유사사업 사례

• 전라남도 광양시의 장난감도서관 운영, 중랑구 장난감대여센터, 성동구 장난감세상 운영사업

- 민간에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
- 대체로 1만원 내외의 연회비를 받고 1건당 2주 내외로 대여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결식 우려 주민, 노인 등 경로식당(노인무료급식시설)을 찾는 이용자들의 식사와 도시락을 준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안정화에 기여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60, 65세 이상 어르신

- 경로식당 : 결식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중 60세 이상
- 식사배달, 밀반찬지원 : 결식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중 65세 이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세부내용

- 저소득 결식노인 등 중식제공 : 주5회(월~금 또는 토)
- 거동불편 노인 등 소외계층 식사, 도시락 배달 : 주5회(식사배달)/주2회(밀반찬 배달)

• 소요예산 : 2023년 120.2억원(시비 40%, 구·군비 6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연도별 추진 실적

- 2023년 기준 1일 평균 310여 명에게 중식 제공
- 240여 명에게 식사 및 도시락 배달

• 기대효과

- 저소득 결식 우려 어르신에게 중식 제공으로 노인 건강 및 일상생활 유지에 기여
- 식사 배달을 통한 주기적인 안부 및 건강 체크로 고독사 방지 및 독거노인의 외로움 해소에 기여

유사사업 사례

•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경기도, 강원도 동해시, 화천군, 경북 청도군, 경남 창녕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을 실시

- 대체로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 급식지원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식사배달과 안부 인사를 시행

3

기본 에너지

에너지 생산·소비 주체로서의 주민에게
에너지 생산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기본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개요

- 마을 내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 설치를 통한 공동체 혜택
 - 1MW 규모 마을주도 태양광지원사업으로 마을 내(행정리)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여 참여한 공동체가 혜택을 누리는 주민참여형 발전 사업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구양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
 - 구양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50% 초과)을 소유
- 사업기간 : 2021년 시작
 - 2021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까지 계속 시행중
- 사업내용 : 햇빛두레 발전소 운영에 따른 20년간 고정가격 이익 보장
 - 한전에 전력판매와 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를 기주로 20년간 고정가격의 이익 보장
- 소요예산 : 15억원
 -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용자를 지원 (총사업비의 90% 한도, 1.7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연 1.2억원의 수익창출 및 수익은 마을복지 재원으로 활용
 - 햇빛발전소 1,000kW급으로 월 1,000만원 정도 수익창출, 해당 수익 마을복지에 활용
 - 마을복지: 마을행복버스 운행, 마을식당(계획), 마을정원화 사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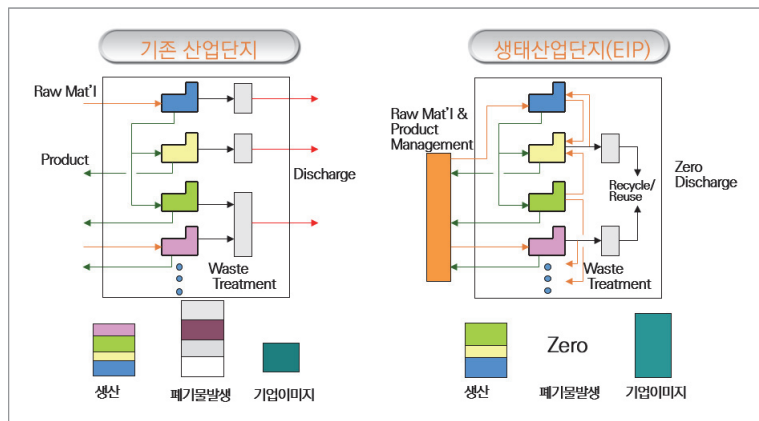
유사사업 사례

-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 조례 기반의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협동조합으로 설립하고, 지역 내 운용하는 태양광에너지 발전수익의 30% 상당을 '햇빛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 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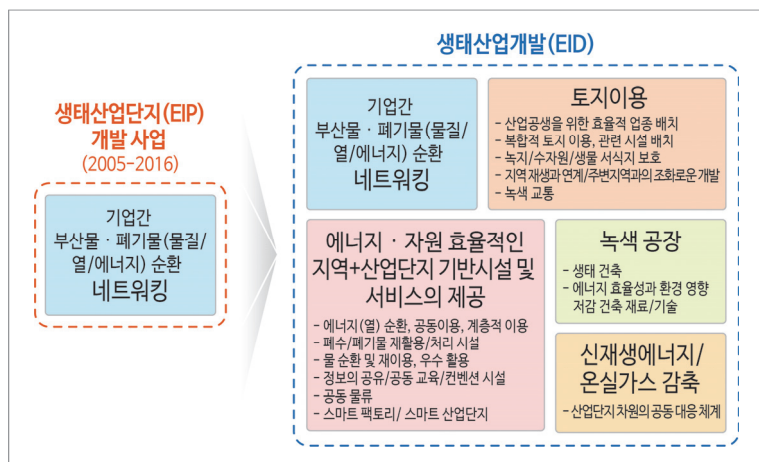
사업 개요

- 국가 및 지역 산업공생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와 산업단지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원·에너지 순환, 온실가스 저감 등의 환경효율성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산업개발' 전략 필요
- 산업단지에 생태산업개발 (EID) 개념을 적용하여 기존 생태산업단지 (Eco-Industrial Park, EIP) 사업에서 추구한 기업 간 산업공생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에너지·자원 효율적인 지역+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서비스 제공, 스마트 녹색 공장, 신재생에너지/온실가스 감축 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산업지역으로 전환 및 개발 필요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생태산업단지 지정 및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는 기업들간의 자원연계 수준에 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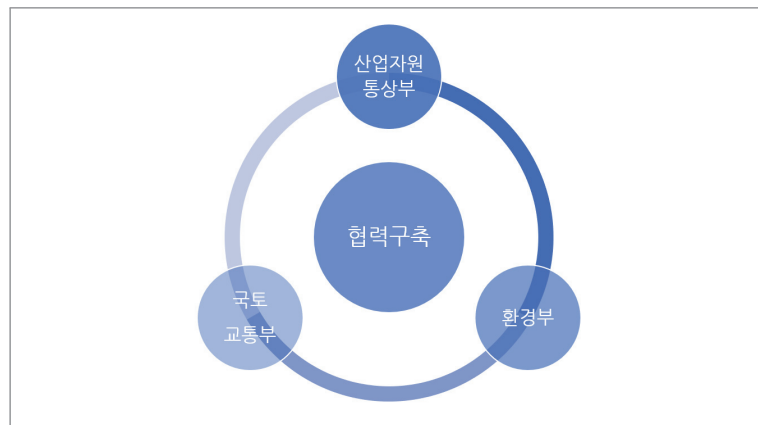
기존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E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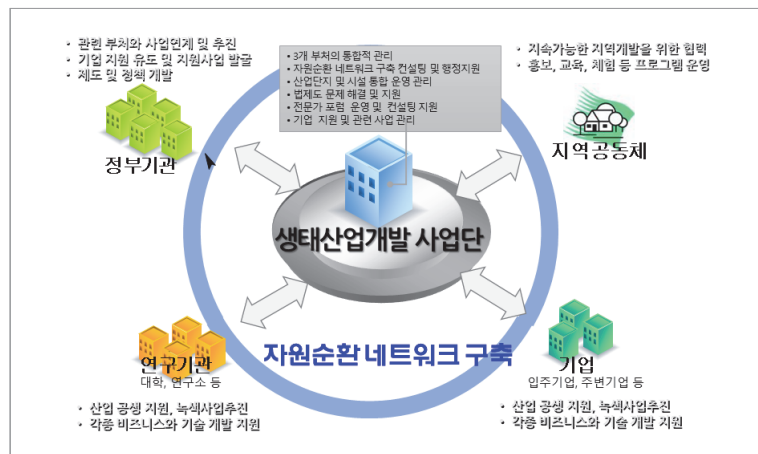
생태산업개발 (Eco-Industrial Development, EID)

주요내용

- **중앙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필요(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 현재 법률하에서 산업단지는 '계획-개발-관리-재생'의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움.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생태산업개발 개념을 적용한 통합법이 필요
 - 현재「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태산업단지 규정을 통합법으로 전환하여 녹색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단지의 개념 정의에 '생태산업개발' 개념을 담도록 개정 필요(가칭 "생태산업개발 기본법" 제정)
 - 산업입지법(국토부)과 산업집적법(산자부)은 통합하고 단일한 법률로 재편하여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밀집지역의 공간계획, 재생사업 등의 관리 및 특화 추진 필요
 - 이러한 법률 재정 및 개정을 위해서는 국토부+환경부+산자부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되어야 함 →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역 사업발굴 및 지원



생태산업개발 부처별 협력



생태산업개발 사업단 기능과 역할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경제적 기대효과) 기업 경쟁력 확보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
 - 원재료, 에너지 등의 절감으로 기업 이익 및 경쟁력 증대
 - 지역 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산활동 및 산업단지 내·외부의 공간 혁신 가능(신규 산업단지, 노후산업단지재생, 지역개발 사업 등과 연계 추진 가능)
- **(사회적 기대효과)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협력 관계 구축**
 - 산업공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친환경 산업 조성, 자원 절감, 일자리 창출, 지역과의 동반성장 등 사회적 가치 실현 → 순환 사회로의 전환 가능
- **(환경적 기대효과) 최적의 토지이용 및 업종유치 계획,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로 환경오염 물질 발생 최소화 및 자원 활용 극대화**
 - 산업공생 네트워크 형성으로 환경오염, 산업폐기물 발생 최소화

유사사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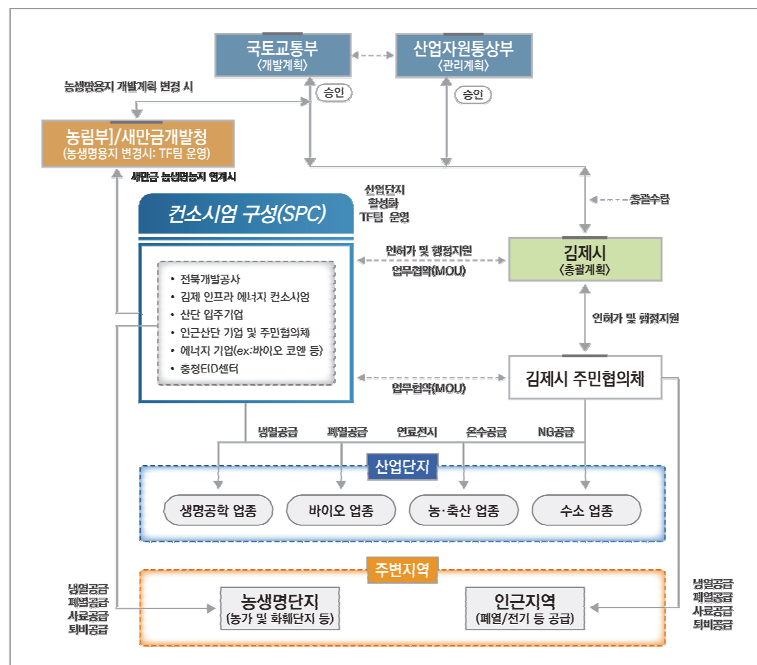
- **(국 외)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태산업개발 성공적 추진**
 - 덴마크 칼룬보르, 캐나다 번사이드, 미국 데번스 등은 쇠퇴한 산업 단지 재생과 지역개발 전략으로 생태산업단지 또는 산업공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 영국 NISP는 Data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국가규모 산업공생망을 구축하고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효과 창출
- **(국 내) 2005년~2015년까지 EIP사업으로 약 235개의 과제가 사업화**
 - 경제 5,745억원 수익창출, 환경 2,040천 tCO₂eq 저감, 사회 992개 신규 일자리 창출
 - '19년부터 '24년 현재까지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음
 - ※ 그러나, 현재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비제도권 업체에 대한 우수 설비 교체가 주요 사업 내용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생태산업개발(EID)이 반드시 필요함

사업 개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년 탄소중립 선언되면서 산업단지는 에너지 자립, 디지털화, 친환경화의 구현할 방안 필요
- 최근 LNG 생산기지의 증대로 인해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162°C 미활용 냉열과 수소를 활용한 복합 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이 가능
 - 미활용 -162°C 냉열은 초저온급동열을 가능케 하며 관련 기업의 에너지사용 절감과 기업 경쟁력(품질·가격) 강화
 - 수소의 연료전지발전으로 발생하는 온열($100\sim 120^{\circ}\text{C}$)은 화학·바이오·농업(스마트팜)에 활용함으로써 산업단지와 인근지역의 공생 추구
- LNG 냉·온열 네트워크 구축은 에너지 전력 자립뿐만 아니라 1, 2차 산업의 저탄소 생산을 가능케 하여 지역의 새로운 특화 전략 산업으로 육성 가능

주요내용

-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자부,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기업 협의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가칭 “**新전략산업 TF팀**” 운영
- 지역 및 산업단지 활성화 전략 공유, 규제혁신 협의, 유치기업 설명회, 수요·현장실사 등 LNG 냉온열 활용 산업공생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



예시)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추진체계

구 분	내 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 공장용지 및 건축물예의 생태산업개발 계획요소의 도입 · 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한 책임 · 공장 건축단계 및 운영 단계에서의 핵심 추진 주체
산업단지 개발자 (공공 or 민간)	· 생태산업개발 계획요소의 적용 주체 · 산업단지 계획 및 조성단계의 핵심 추진 주체 · 조성비용 및 기업 유치 등에서의 경제적 이해의 추구
산업단지 관리 주체	· 산업단지 조성 이후 단계의 생태산업개발 핵심 추진 주체 ·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주체 · 산업단지 관리 운영비용에 있어서의 경제적 이해의 추구 ·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책임
지역 커뮤니티	·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적 영향에 이해관계 · 산업단지 내외 지역 경제에의 영향에 이해관계 · 생태산업개발 추진 관련 지원 및 관련 규제 도입의 주체
기타	· 생태산업개발 추진 관련 기업, 전문가 그룹, 중앙정부 등

※ 김제시(2024), “김제시 전략산업 발굴방안 연구용역”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지역 특성 및 자원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 순환경제 전환
- 자원순환 및 에너지 사용 저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경쟁력 강화
- 특화된 지역 미래전략산업 발굴 → 지속가능성 강화

유사사업 사례

• (하동군: 추진 중) 경남군 하동군 금남면 대송산업단지(20MW 수소연료전지)

- 사업규모: 62,000㎡(약 2만평), 투자비 약 1,420억원, 사업기간 2022~2025(예정)
- 주요내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초저온급속냉동, 온열 스마트팜 공급

• (김제시: 기본계획 중) 김제시 백산면, 공덕면 일원 (20MW 수소연료전지)

- 사업규모: 2,164,892㎡(약 65만평), 투자비 약 4,000억원, 사업기간 2025~2035(예정)
- 주요내용: 농·생명 에너지 융복합 생태산업 클러스터 단지(에너지 자립, 산업공생, 친환경 녹색단지 조성)

사업 개요

- 화석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구의 당면과제
- CO₂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전력사용량 감소가 필요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 10월 ~ 2017. 10월
- 총사업비 : 252.2억원
-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7층, 공공임대주택 등 121세대(연면적 17,652㎡)
- 사업구성
 - 행복주택 공공임대 115세대
 - 연구모니터링 2세대, EZ공동체주택 3세대, 게스트하우스 1세대
- 사업내용 : 에너지제로주택 적용 기술
 - 독일 수준의 패시브 기술 적용 : 외단열공법, 고성능 창호 등
 - 고효율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 사업운영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모델 도입
 - 에너지제로주택 입주인이 직접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스템으로써 협동조합 모델로 운영
 - 입주민들이 5개 분과 영역에서 분과활동 중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패시브 기술로 에너지 사용량 61%절감 및 고효율설비로 13% 저감
 - 재생에너지를 통해 33%의 에너지 생산해 '제로에너지 달성'
 -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제로 주택단지 완공
- 기대효과
 -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 최고의 성능을 확보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로에너지의 친환경 주거 단지 확산
 - 노원에너지제로 실증단지를 통해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 검증 및 관련분야 기술 향상 도모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 절약이 곧 발전’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에너지 절약 공동체 구축
- 전년대비 개인 10%이상, 단체 5%이상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감축 활동지원: 구와 절전소 간 협의체 구성 운영, 절전 교육·인센티브 등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공동주택, 주민커뮤니티, 학교 등

• 절전소 민관 협의체 운영

- 절전소추진단(구청·시민단체·주민) 및 절전소장 월례회의 운영

• 절전소 공동체 활동 사업추진

- 성북절전소 공동체 워크숍, 우수사례지 탐방, 성북절전소 평가보고회, 학교절전소 그린잡 진로체험 행사, 성북절전소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등

• 절전소 주민 에너지 절약 활동 지원

- 절전소 길라잡이 양성 운영, 절전소 소식지 제작 등 절전 노하우 제공, 찾아가는 절전특강 및 에너지교실, 학교절전소운영, 에너지절약물품 지원 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절전소 참여 공동체 지속 확대 : 2012년 3개소 → 2017년 64개소로 확대
- 에너지 절감량 (2012~ 2017, 전년대비)

연도	합계	2012	2013	2014	2015	2017 (1월~9월)
절감량(kWh)	12,082,370	849,149	1,387,744	4,050,167	1,431,719	4,363,591

• 기대효과

- 성북절전소 참여 공동체의 확대 및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성과로 성북구 전체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
- 성북구·절전소·시민단체(녹색연합 등)가 공동기획하고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에너지 협치의 선도 모델로 발전
- 제1호 절전소 석관두산아파트와 경비원과의 동행(同幸)은 성북절전소를 기반으로 한 더불어 행복한 성북구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확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최적의 입지인 자연환경을 공유자원으로 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공유하고(‘햇빛연금’, ‘바람연금’), 지역유인의 정주 인프라를 지원
- 조례 기반의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협동조합으로 설립하고, 지역 내 운영하는 태양광에너지 발전수익의 30% 상당을 ‘햇빛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 배당
- 햇빛연금을 활용한 ‘햇빛아동수당’을 만들어 기존의 연금혜택을 못보는 군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분기별 수당을 지급
- 군 내 ‘작은섬 학교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자녀를 가진 가구의 이주 시 빈집을 개조한 주거 지원 및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햇빛아동수당 지급

주요내용

• 사업대상: 신안군 주민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세부내용

- 2018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안좌면, 지도읍, 임자면 등 지역 내 5개 섬에 6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 2023~2030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및 바람연금지급 계획(신안군 지역 전체 대상)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2021년 안좌면(안좌·자라도) 주민 대상 햇빛연금 지급(인당 12만~51만원)
- 2021~2023. 5개 섬 지역주민 10,775명 대상 햇빛연금 지급 (누적 100억원 규모)
- 햇빛연금 지급 이후 지속적인 지역 인구증가율 상승 : 2020년 -3.3% → 2023. +0.5%
- 2024년 비금·신의·증도면 등 발전시설 구축 확대 및 지역주민 45%까지 연금 확대

사업 개요

- 국민 소득의 증가로 육류 소비도 증가함에 따라 축산업도 성장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과다하게 배출됨에 따라 다량의(약 67%) 가축분뇨가 인근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악취로 인한 민원도 급증하여 마을 구성원 간의 갈등 요인으로 등장.
- 이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가축분뇨 발생지에서 1차 처리(고온 가수분해)하여 고형연료로 전환시키고, 이 고형연료를 이용하여 스팀, 전기,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을 제안
- 지역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순환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에너지를 무상 제공하거나 에너지 판매수익을 지역 기본사회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

주요내용

-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수거 및 운영체계 구축 (지역순환에너지 공급망 구축, 사업 운영주체 설립 및 초기 투자재원 확보 등)
- 지역의 축산단지에 고온 가수분해 설비를 설치하고 발생된 가축분뇨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토양/하천 오염원 제거 (참여 축사별 연 6회 이상 가축분뇨 처리 목표)
- 지역순환에너지 사업 수익의 지역사회에 적용방안 정립 및 제도화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악취 민원 및 토양/하천 오염의 선제적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
 -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기본사회 구축에 기여
 - RE100 수요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사업 개요

- 왕겨, 고추대, 인삼박, 미이용 목재, 커피박, 비지박, 효모박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농업 부산물을 분쇄 및 분급하여 순환자원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산업 자원으로 보급
- 일정 굵기 이상으로 분급된 재료는 축사의 깔개 등으로 활용하여 수입 톱밥의 대체제로 활용
- 일정 굵기 이하로 분급된 재료는 식물기반 플라스틱 대체소재로 생산 보급. 식물기반 플라스틱 대체소재는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이 없는 건축자재, 다화용기, 도시락용기 등을 사출 성형하는 원재료로 사용됨.

주요내용

- 사회적 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최적화된 사업 조직 및 공급망 구축
- 지역별 발생 순환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 방향 수립
- 순환자원을 활용한 지역 축산농가 깔개 및 식물기반 플라스틱 대체소재 시장 개발 및 확대
- 본 사업을 통해 보급된 축산깔개는 수거 후 지역 순환에너지 생산에 활용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
 - 순환자원을 활용하여 산업자원화 함으로써 순환경제 패러다임 기반 구축 및 지역 탄소중립에 기여
 - 지역부산물 활용으로 폐기비용 절감 및 수입 대체효과 기대

사업 개요

- 지역에서 발생하는 왕겨, 커피박, 미이용 목재, 고추대, 과수전지목, 가로수전지목 등 다양한 식물기반 부산물, 폐기물을 분쇄하여 플라스틱 대체 소재 생산
- 대체 소재로 미세플라스틱 배출이 없는 다양한 유형과 용도의 다회용기를 사출 성형하여 제작
- 장례식장, 지역축제, 공공기관 행사 등 지역의 행사에 사용하는 일회용기를 대체하도록 보급하고, 일회용 도시락 용기도 미세플라스틱 배출 없는 소재로 대체토록 유도

주요내용

- 사회적 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순환자원 고부가가치화 사업 운영체계 구축 (사업 주관조직 설립,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원료 및 제품 공급망 구축, 초기 투자자원 확보 등)
- 전문 기업/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사업 주관조직에 소재 선정, 원료 분쇄, 제품 사출, 다회용기 운영방법 등 관련 기술과 지식의 교육 및 기술이전
- 각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유형의 다회용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사용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순환자원 생태계 구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기대효과
 - 버려져 왔던 미이용 순환자원을 다회용기 소재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순환자원 기반 다회용기의 사용을 확산시켜 순환경제 패러다임 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 식물기반 다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
 - 미이용 순환자원의 소각 방지, 일회용기 사용 축소를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사업 개요

- 세계는 순환경제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자원을 순환시키려면 폐자원을 발생지에서 재자원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지역, 지역/마을 단위의 재생산업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함.
- 유럽의 ESPR, DPP 등의 시행으로 기업들의 고품질 재생원료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며, 이미 고품질 페플라스틱은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 중 (고품질 폐비닐의 경우 10~30만원/톤). 또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지원금을 적절하게 배분하면 경제성을 더 개선시킬 수 있음. (ESPR: 에코디자인규정, DBP: Digital Product Passport)
- 이를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정과 상업지에서 배출되는 폐비닐 및 페플라스틱류를 수거, 선별하여 고품질 자원화하고 지역 재생산업체에 원료로 공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지역산업의 상생관계 구축

주요내용

- 사회적 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최적화된 민간 페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사업 조직을 구성하고 순환산업 공급망을 구축
- 효과적인 분리/수거 정책과 폐자원 처리비용 전환, EPR 지원금 배분체계 개선 등 지자체의 지원정책 강구 및 구축
- 사업이 안정되면 전자폐자원(e-waste)의 고품질 회수 등 다양한 폐자원으로 사업 대상 확대 (경제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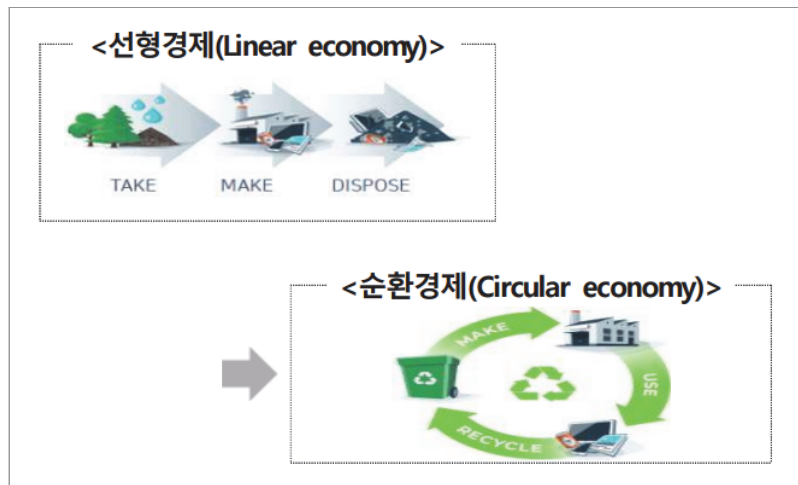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지역 폐자원 관련 민원과 처리비용 절감 및 순환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 기반 구축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도 가능)
 - 폐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 순환산업 기반 강화 및 상생구조 구축

사업 개요

-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EU를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 등 다양한 규제 및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를 대응할 대안이 매우 부족한 실정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인식 전환과 자원순환 네트워크 개발이 시급
 - 기업-지역의 지역자원순환 네트워크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또한 법·제도, 공간구조 등의 문제로 인해 자원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움
 - 또한 기업간 정보 공유와 지역 사회와의 거버넌스는 폐기물 원점처리·재자원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미구축 시 순환경제 전환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선형 → 순환경제 전환〉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과 환경 문제의 원인 요인을 재자원화하고 에너지 및 원재료로 활용하여 “지역↔산업단지”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지역 ‘新’ 성장동력원으로 탈바꿈
 - * 부산물, 폐자원, 폐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순환형 공생네트워크를 구축(자원순환, 메타볼리즘 달성)

주요내용

- 중앙부처간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는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과 이행관리로 성과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기타 기업은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기업-기업의 순환 네트워크에 그침
 - 기존 “생산(1차생산, 기업제조 등) → 소비(공간:도시 등)”의 선형 경제이며 현재 추진되는 사업도 기업의 자원효율화, 재활용, 제재조 등 생산 기반의 재구조화에 그치고 있음
-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공간) 범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모델 발굴이 필수

- 중앙부처 관리하에 전담기관 설립과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통해 지역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 사업 모델 발굴 및 실증사업을 추진

구 분	내 용
중앙부처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사업 수행기관 (전담기관)	· 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 · 실적·성과점검, 최종 평가 등의 과제 관리 · 과제 사업비 집행 관리 · 감독 등
참여지역(공간) 및 기업	· 사업 추진 대상지(공간) 추진위원회 구성(이해관계자 등) · 운영계획 수립(조사, 거버넌스, 문제점, 역량강화, 해결방안 공유, 계획서 작성, 사업 적용 등) · 사업 수행, 성과보고 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新 성장동력원으로 지역 이익 증대 및 경쟁력 강화
 - (사회적 효과) 새로운 산업공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과의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
 - (환경적 효과) 지역자원순환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환경오염 물질 최소화 및 자원 효율화를 통해 국토환경 개선

유사사업 사례

- (국 외) 덴마크 칼룬보르그 산업단지 생산 시 발생하는 잉여열은 인근 Holbæk(홀베크시)에 공급하는 모델을 추진중에 있으며 Non-Digital Game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발굴, 지역과의 거버넌스 구축, 교육 사업 등을 추진

잉여열 네트워크 구축 사업(산업단지→지역)	Non-Digital Game

- (국 내) SK인천석유화학 공정 열원을 회수해 지역 난방용 에너지로 공급('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약 4만가구 공급)
 - 기업-기업 간 스팀 네트워크 사례로는 울산 스팀 High-Way, 청주산업단지 스팀 네트워크 등이 있음
 - 다만 지역의 부산물, 폐자원, 폐 에너지 등을 이용한 지역과 함께 공생하는 모델은 매우 부족한 실정

4

기본 교육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보편적 평생학습 서비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서 항공료, 숙박비가 소요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내 고등학교 3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비 지원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도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교밖 청소년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소요예산 : 약 20억원

- 산출근거 : 7,000명 × 28만원/명

• 세부내용

- 학생 1인당 28만원, 1회 지원
- 도내·외 방문 여비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등) 및 진로탐색 과정에서 소요되는 입장료, 체험료, 도서관입비에 대한 정액 지원
- 학생의 편의를 위해 재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안내 및 지급, 학교밖 청소년은 별도 신청 및 지급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유사사업 사례

• 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교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에 대해 각급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모든 학생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음

- 입학준비금,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교복 및 체육복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유기농, 무농약의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우선 공급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관내 사립유치원(만3, 4, 5세)와 초중고 및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소요예산 : 365억원 (성남시, 2024)
- 세부내용
 - 친환경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현물지원 및 학교에 대한 현금지원을 통해 관내 각급학교 재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제공
 - 희망학교에 대해서는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차액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의 품질제고 (2024년 예산: 55억원)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2007년 성남시의 무상급식 추진 이후, 무상급식의 전국적 확산
 - 학교급식의 경비부담율(전국) : 교육비특별회계(72.7%), 자치단체지원금(20.2%), 보호자부담금(5.1%), 발전기금/기타(2%) (자료: e-나라지표)
-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친환경 또는 로컬푸드로 바꾸려는 시도 확산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 확대: 2,884억원(2022), 3,126억원(2023)
 - ※ 자료: 『2023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현황조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2023)

유사사업 사례

- 2024년 현재,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표준적인 관행이 되어 있으며, 식재료의 친환경화 및 로컬화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음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64,000여명, 2024년)

- 도내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 또는 타 시·도에서 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소요예산 : 약 192억원

- 산출근거 : 64,000명 × 30만원/명

※ 2024년에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부담했으나 2025년부터 경남교육청이 부담 예정

• 세부내용

- 교복착용교는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현물)하며
- 교복 미착용교는 학교에 신청하면 현금지급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하면 현금 지급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사각지대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유사사업 사례

- 성남시 교복지원사업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광역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복지원사업 실시
 -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구, 남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중구, 부산진구, 인천 강화군, 경기 광명시, 고양시, 군포시, 충남 논산시, 전남 나주시,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함평군, 경북 경주시, 김천시, 청송군, 봉화군, 경남 남해시, 밀양시, 진주시,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울진군, 함안군, 강원 고성군 등이 시행 중
 - 공주시는 현물 형태, 경상남도교육청은 현금 및 현물로 지원
- 서울시, 울산광역시 등에서는 각급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준비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음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수학여행비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고등학교 2학년
 - 현장체험학습 : 초등학교 4·5학년, 중학교·고등학교 1·3학년
- 사업기간 : 2023년 ~ 계속
- 소요예산 : 약 227억원(수학여행비 지원), 약 74억원(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세부내용
 -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학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실비)
 - ※ 기본지원금
 - 수학여행비 : 초6(210천원), 중2(220천원), 고2(400천원)
 - 현장체험학습비 : 중3(120천원), 고3(130천원)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취약계층은 실비 지원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참여의 부담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경험을 확대하여 교육의 효과 및 교육공공성 제고
- <모두의 체험학습>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개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뉴얼 및 우수 사례를 함께 확산시켜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하는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의 효과 제고

유사사업 사례

-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비용지원 사업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경기 김포시, 군포시
 - 취약계층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기장군, 충남 천안시, 강원 삼척시, 전라남도 장성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하여 원하는 도서를 가정까지 무료로 배달하여 도서관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영유아(보호자)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소요예산 : 약 200만원

- 산출근거 : 200건 × 10,000원(왕복)

• 세부내용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무료 도서 대출·반납 택배 서비스
-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대출권수 1인 최대 10권, 대출일수 3주 (대면대출과 동일하게 운영)
- 도서 반납도 택배(우체국택배)로 할 수 있도록 지원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하면 현금 지급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기간에 전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서비스를 발전시킨 사업으로 향후 드론배송 등으로 진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인구밀도가 낮은 고흥군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독서문화, 문화복지 서비스
- 도서관 자료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 확산
- 도서관 역할 강화 및 독서생활화 유도

유사사업 사례

• 교육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독서관련 프로그램

- 경기도 부천시 아가환영복스타트 서비스: 만1세 이하의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복스타트 책꾸러미를 배부 (소요예산: 26,700천원)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사회인이 되는 청년(19세)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19세 도봉구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소요예산 : 약 3억 7천만원
- 세부내용
 - 1인당 도서구입비의 80% 지원 (최대 10만원 이내)
 - 지원 도서 : 자기개발 도서, 인문학, 일반교양 도서, 어학 및 자격시험 준비 도서, 취·창업 도서 등
 - 개인당 1회 신청 가능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기존의 창업지원,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등의 취창업 지원제도들보다 젊은 연령대(19세)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조기에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모
- 도봉구 내의 청년 약 3천여명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높여서 지역정착 도모

유사사업 사례

- 청소년기를 갓 벗어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들이 확대되고 있음
 -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 하고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매년 600여명의 청년에게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최대 500만원 지원
 - 전남 광양시 역시 청년 대상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시행 중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학부모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초, 중, 고를 포함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소요예산 : 2024년 기준 약 530.4억원(시·자치구비 52%, 교육청 48%)
- 세부내용
 -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교 1인당 30만원 지원
 - 교복 주관 구매 : 학교는 교복업체로 대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가정에 모바일포인트로 지급. 교복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 수익자 부담 경비로 학부모에게 수납.
 - 포인트(제로페이) : 교복 미착용 학교, 학교주관구매 미참여 학생(물려입기를 통해 학교에서 지정한 1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나 일부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 제로페이 포인트를 발행하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당해 11월까지 사용(의류, 도서, 안경, 전자기기 등 구매 가능)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2024년 기준 서울시 초·중·고 및 각종 특수학교 1,354개교 195,000명 지원
- 성남시에서 시작 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의 확대 정책으로 1인당 한도 금액 내에서 교복 구입 후 혹은 미구입시 잔액에 대해 학습기기,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어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음.

유사사업 사례

- 현재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 많은 곳에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
 - 부산광역시 강서구, 충청남도교육청, 구리시, 용인시, 평택시 등에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시행 중
 -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여군은 초등학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중·고등학생 대상, 홍성군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동일한 사업을 시행
 -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기 안양시, 강원 화천군 등은 다자녀 가정 내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에 한해 해당 사업을 시행
 - 세종시, 울진군은 입양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을 지원
 - 경상북도, 경기 군포시, 안양시, 경남 의령군, 거창군 등은 취학 전 어린이집 입학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별, 연령, 계층에 관계 없이 화성시민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과 평생 배움 지원

주요내용

- 사업대상 :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화성시민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소요예산 : 약 6.6억원(시비 100%)
- 세부내용
 - 화성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다양한 분야(IT, 예술, 기술, 어학 등)의 교육가맹점에서 강의 수강 시 1인 최대 30만원 장학금 지원
 - 내일배움카드, 평생교육바우처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
 - 개인당 1회 신청. 학위 취득을 위한 등록금은 제외.
 - 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2023년 기준 시민 2천여명에게 6억원의 장학금 지원
 -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홈페이지(<https://www.ils-hstree.org/main.do>)를 통해 관내 교육가맹점 현황 안내와 선정자 공고 등을 지원 중
- 기대효과
 - 시민이 취·창업, 진로설계, 자기 계발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부분의 교육가맹점이 화성시 관내에 위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유사사업 사례

- 중앙정부 단위의 평생교육바우처, 내일배움카드 등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지자체 단위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성남시, 광주광역시 남구 등은 직업교육의 범주는 아니지만 뒤늦게 학업을 시작하는 성인 비문해자 대상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을 통한 문화, 예술,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 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성동구 거주 중학교 1학년 재학생(외국인학생 포함) 및 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소요예산 : 2024년 기준 2.2억원(구비 100%)
- 세부내용
 - 학생 1인당 충전식 포인트 카드 지급(상, 하반기 각 100,000원)
 - 동 주민센터 내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신청 및 시스템 등록 후 카드 사용
 - 진로, 직업, 문화체험, 스포츠 시설 관련 온·오프라인 사업체에서 사용 가능
 - 오프라인 사용처 : 케이크 공방, 서점, 학원, 독서미술관 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2024년부터 1인당 지원 금액 인상(연간 100,000원 → 200,000원)
- 2021년 기준 대상 청소년의 85.7%가 신청하여 개인체험학습에 활용하였으며 연간 1,300~1,600명의 성동구 13세 청소년을 지원함
- 사용처의 적용 범위가 넓어 직업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여가 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유사사업 사례

- 학교의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위한 지원은 전국적으로도 아직 많지 않은 편
 - 부산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세종시, 김포시는 청소년 대상 현장학습체험학습비를 지원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 경기 오산시 등은 저소득층 내지 다자녀 가정에 한정해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
 - 전주시 등은 저소득층 내지 소년소녀가정 대상 문화체험활동을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장애 친화적 학습환경 조성을 통한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 보장
 -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및 비장애인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소요예산 : 약 5,400만원(구비 100%)
- 세부내용
 -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 장애인 직업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장애인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촉진 및 활성화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동-남 프로젝트),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운영('다다익선' 프로그램)
 -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구축 :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인력 양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2024년 기준 3개 과제 25개 세부사업 운영
 - 사업 참가 장애인은 약 240여명, 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640여명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 기대효과
 - 단순히 장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와의 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
 - 장애 유형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다변화함으로써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중

유사사업 사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경기 안산시, 용인시, 경북 김천시 등 14개 지자체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장애인 드론조종술 교육, 가드닝 등)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기 광명시, 김포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등 14개 지자체는 비장애인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장애인과 비장애인 행복한 마을 만들기, 학습동아리+장애인 연계 프레밀리(friend+family) 등)
 - 경기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등은 자립 및 취업연계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중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졸업앨범비 지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졸업앨범비 지원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무안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소요예산 : 2021년 기준 1.38억원(군비 100%)
- 세부내용
 - 무안군 소재 초·중·고 졸업생 대상 졸업앨범비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1인당 앨범 구입비 6만원을 학교에 지급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2021년 첫 사업 시작 후 지역사회 학부모 및 학생, 교사에게 큰 호응을 얻음
 - 가정 형편에 따라 학교별로 10명 내외의 학생이 졸업 앨범을 사지 못하였는데 지원 사업을 통해 모든 졸업생에게 졸업 앨범을 제공
- 기대효과
 -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에게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 지원이 되었음

유사사업 사례

- 부산광역시, 충청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양시, 충북 진천군 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
 - 대체로 저소득층 가정 학생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 혹은 현금 지원이 아닌 현물지급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 안양시는 초등학교 대상 소득제한 없이 지원, 진천군은 유치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앨범비를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이 방과 후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
- 교육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구청, 지역사회,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이를 교육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은평구 거주 청소년, 학부모

• 세부내용

- 행복한 우리 아이를 위한, 꿈을 키우기 위한 마을 속 학교 프로젝트 설계
-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전용 문화공간, 신나는 애프터 센터 마련
-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정책 수립 추진
- 행복한 아이를 위한 부모 교육 운영 및 지역사회 교육협의체 운영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보수하는데 지출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역의 자원과 연계하고 마을 속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쓰이도록 개선
- 청소년을 위한 쉼터, 문화활동공간으로 애프터센터 구축
- 청소년이 마음껏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지원 체계구축
-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하여 은평구 교육예산편성과 집행에 참여
-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 지역사회교육협의체 운영 :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심의, 의결 및 토론회, 워크숍, 소셜픽션 운영

• 기대효과

- 청소년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로 발달 및 사회성 함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 청소년이 직접 교육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여하여 민주시민교육 역할도 하는 것으로 기대
- 학교에서 마을로 다가가는 사례에 마을의 교육자원을 발굴해 학교를 지원해 왔던 우리구 마을 속 학교 사업을 결합하는 혁신교육지구 이상적 모델구현
- 민관거버넌스, 주민참여, 혁신적인 교육정책 추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육성 정착

유사사업 사례

- 청소년 문화시설 구축 관련 사업은 적지 않으나 청소년의 교육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 참여, 구청-지역사회-학부모가 협의하는 교육협의체 운영 사례는 많지 않음.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공공시설과 학교시설 건립에 이중투자 방지 및 예산 효율성 극대화
 -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 인프라 구축에 지방자치단체 참여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기초생활권(도보권)에 주민 접근 용이한 초등학교
- 사업기간 : 2012년 ~ 2025년
- 소요예산 : 약 5,200억원(개소당 약 260억 × 20개소)
- 세부내용
 - 학교부지(학교시설+공공시설) + 공원(운동장) 연계
 - 지자체: 학교부지 무상사용, 학교: 공공시설과 공원내 운동장을 교육자원으로 활용
 - 평생학습시설(일반, 청소년), 도서관, 어린이집 등 조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국내최초 택지개발지구 학교시설 복합화 모델 개발
 - 우수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확보
 -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실현
- 기대효과
 - 복합화 시설내 연극·영화미디어, 인문학, 생활과학, 음악·미술, 생태 교육장 시설을 구축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특화교육 가능
 - 학교부지를 이용한 시설부지 매입비용 절감 및 이용의 효율성 증진
 - 지역주민과 단절된 학교공간이 지역의 문화복지서비스 공간 확충

유사사업 사례

- 택지개발지구와 학교시설을 복합화 모델로 개발한 경우는 많지 않음

5

기본 주거

공공분양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정책을 통해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 청년의 자립기반 도모와 함께 지역사회 정착 유도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월 최소 8일 이상) 전남 소재 사업체에서 노동하거나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에 거주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사업기간 : 2024년 ~ 계속

● 세부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 소요예산 : 2024년 약 9억원(도비 33%, 시·군비 66%)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개시 후 약 6개월 간 4억원가량 지원금 지급

- 약 350명 내외 전남도 내 청년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주거안정 외의 효과도 기대

- 전남도 내 사업체로의 청년 인력 유치와 지역사회 청년 인구 유입 등의 부수적 효과 역시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유사사업 사례

● 인천시, 울산시, 경상남도, 세종시, 충북 음성군, 경북 구미시, 전북 부안군, 익산시 등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등

- 인천시, 세종시 등은 미취업 청년을 포함한 일정소득기준 이하 청년 대상 월세 지원사업 실시
- 서울시, 서울시 도봉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경기 안양시, 여주시, 평택시, 안양시, 화성시, 군포시, 수원시, 충북 영동군, 경북 구미시, 전북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전남 광양시, 해남군 등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이사빈도가 높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한 이사소요비용 지원

주요내용

- 사업대상 : 2023. 11. 20.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거주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
- 사업기간 : 2023년 ~ 계속
- 세부내용
 - 최대 40만원까지 실비 지급(이사비 및 중개보수 비용), 생애 1회 지원
- 소요예산 : 2023년 3천만원(시비 10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의 인구 유입에 긍정적 효과 기대
 - 단순히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의 이사비용을 완화하는 서비스의 성격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유사사업 사례

-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시 동구, 안양시, 과천시, 충남 태안군, 경남 의령군, 속초시 등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 태안군은 '24년부터 18~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5000/60만원 이하 거주) 대상 1회 최대 40만원 지원(연간 50명)
 - 안양시와 서울시 등도 2024년부터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서울시는 2022년 1월 이후 전입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SH공사와 협업하여 지하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제공으로 주거환경 개선
- 입주 어르신이 공동주택의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하여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고독사 예방, 외로움 감소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어르신

- 자격요건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어르신

● 사업기간 : 2013년 ~ 2023년

● 세부내용

-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 금천구는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 관리, 주택 관리. SH공사는 임대주택 관리 권한 일부를 금천구와 공유하고 계약 관리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 기본 임대기간 2년,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보증금이 부족한 경우를 위해 보증금 90%를 연 2% 이율로 융자 지원
- 입주어르신은 관리규약을 준수하고 공동체 프로그램(옥상텃밭, 운동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미용 프로그램 등)에 참여
- 소요예산 : 2023년 80만원(입주자 선정 심사수당)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동별 1동씩 총 10개 동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확대

- 현재 총 5개동에 5호 주택이 공급

● 기대효과

- 입주자 간 노노케어로 고독사 방지
- 단독주택 밀집지역 노후 불량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
- 공공원룸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건설비용 절감
-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마을공동체 조성

유사사업 사례

● 은평구 은빛주택, 동작구 미소주택 등 홀몸어르신 공공임대주택 사업

- 서울시, SH/LH공사, 자치구 협업 하에 금천구와 유사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엘리베이터, 환관보조일자, 통행보조용 핸드레일, 욕실 내 비상벨, 접이식 의자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설계를 반영하고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 그 외 전남 장성군의 공공실버주택(누린타운), 세종특별시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도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년 창조기업인 및 창업준비생들을 위하여 스스로 창조하고 함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율적이고도 창조적인 주택, 창업의 융복합 공간 「도전숙」 제공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성북구 거주 1인 창업준비생, 창조기업인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세부내용

- 수도권 대학생 평균 월세 42만원의 18~20% 수준의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역대매출을 창출하는 청년 기업 조성

• 소요예산 : 2023년 80만원(입주자 선정 심사수당)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전국 최초,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숙 확대 공급

- 2014.4. 도전숙 1호점을 시작으로 2017.11. 현재 6호점 공급. 지속 확대중

구 분	총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개소	10	1	1	2	3	3	-
기업 수	143	21	15	27	38	42	-

- 도전숙 입주기업 매출신장 : 15개기업 1,250백만원
- 창업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는 공간

• 기대효과

- 1인 창조기업 공공원룸주택「도전숙」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 창업 적극 장려
- 성북형 창조기업타운 조성을 통하여 신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유사사업 사례

- 입주기업 지원강화, 건축구조 등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창업맞춤형 주택 공급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년주거 공동체 플랫폼 조성을 통한 청년계층의 주거 안정화
- 청년주거 공동체형 플랫폼 조성으로 청년계층의 주거 안정, 청년인재의 양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체 형성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청년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세부내용
 - 경기도-서울대 간 구 농생대 활용 MOU체결('15.4.)
 - 따복기숙사 건립(상록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무상 임대차 계약('15.8. ~ '16.2.)
 - 따복기숙사 공사착공 / 준공 : '16.11. / '17.8.
 - 따복기숙사 개관 : '17.9.
 - 관리비 포함 월 13만원 내외로 입주가능하며 식비 및 세탁비용 역시 저렴하게 공급
- 소요예산 : 97.2억원(기숙사 철거 및 리모델링 비용, 운영예산 별도)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경기도 사회적 경제조직의 위탁운영으로 민간 참여 활성화 :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5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운영
 - 공공자원(서울대학교 농생대 구 기숙사) 활용을 통한 청년 주거문제 해결
 - 2024년 기준 약 278명의 경기도 대학생 및 청년 입주
- 기대효과
 - 대학생, 청년 주거안정,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기존 공공기숙사의 비효율성 개선 및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을 통한 차별적 운영
 - 입사생자치회 및 협동조합 구성으로 청년 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 효과

유사사업 사례

-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와 같은 공공기숙사 사업이 실행 중
 - 대학과 협의해 대학(사립) 기숙사를 건립하거나 지역(연합) 기숙사 형태가 있음.
 - 경우에 따라 소득기준(저소득층)이나 재학기간 등의 기준으로 심사.

6

기본 교통

사회 ·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안전한
양질의 공공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교통부문의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친환경 대중교통정책
- 아동·청소년·청년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서 부담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요내용

● 사업대상

- 화성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청년(6~23세) 및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세부내용

- 지원대상자(아동·청소년·청년·어르신)이 화성시 관내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마을버스 요금을 월(분기)별로 정산 및 검증하여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
- 중앙부처 및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예: 산업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 소요예산 : 185억원 (버스공영제 추진, 2024년), 약 96억원(무상교통 추진, 2024년)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대중교통 이용증가로 인한 시민건강, 교통분담, 탄소저감 등에 기여

● 추진성과

- 2021년 9월까지 이용자 14만 8,752명에게 18억 8800만원이 지급(비용), 직간접적 편익은 187억 9000만원으로 추산
- 대중교통 이용자수 연간 약 1,480만명에서 3,846만명으로 약 1.6배 증가

유사사업 사례

- 전남 신안군, 세종특별시에서 버스공영제와 연동한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
-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성시, 충청남도, 충북 영동군, 강원 정선군 등에서 시행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증진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전라남도 고흥군 10개 읍면 34개 마을 주민 (※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선정)

•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 소요예산 : 2억 4천만원 (국비 50%, 군비 50%)

• 세부내용

- 운수업체에 위탁하여 23인승 버스를 장날 또는 공중목욕장 운영의 날에 맞춰서 마을회관과 읍면소재지를 왕복 운행 (일반 1,000원, 초중고생 100원에 이용가능)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낙후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
- 지역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필수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유사사업 사례

• 대중교통이 어렵거나 이동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지원 사업

- 대중교통 낙후지역 : 천원택시(파주시), 이음택시(경기도 광주시)
- 교통약자 : 임산부(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영광군), 장애인(울산광역시, 경기 성남시, 오산시, 충북 충주시, 경남 함양군), 의료취약계층(충남 예산군), 교통약자(경남 밀양시, 강원 철원군), 어르신(제주특별자치도)

• 수요반응형 교통수단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및 자원효율성 제고 사례

- 경기도 뚝버스 : 파주시에서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23년 경기도 10개 기초자치단체 (안산, 평택, 수원, 고양, 화성, 양주, 김포, 하남, 안성, 이천)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 현재 지속적으로 확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년들의 가계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정착을 지원
- 자가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에 필수적인 숙련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 사업대상

-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홍천군에 거주 중인 만18세 이상 만20세 이하 청년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 사업기간 : 2023년 ~ 계속

● 세부내용

- 관내 운전전문학원 등록 후 면허 취득 시 학원비의 50%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

● 소요예산 : 1억원 (군비 10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청년들의 운전면허 신규 취득을 장려하며 지역 운전전문학원의 매출 증대

- 2024년에는 6개월만에 예산 소진

유사사업 사례

●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운전에 대한 노출이 적었던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수강료 지원사업들이 있음

- 결혼이민자 : 광주광역시 남구, 경남 밀양시, 남해군, 전북 남원시, 순창군, 전남 곡성군
- 북한이탈주민: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기도 성남시
- 장애인: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대중교통 불편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교통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사업대상 : ① 마을에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폐지될 수 있는 지역 ② 노선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을 초과하거나 마을 중심지에 버스정류장이 500m 이상 거리에 있는 마을
 - 2023년 57개 마을에서 2024년 63개 마을로 확대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소요예산 : 12억원
- 세부내용:
 - 지급대상 마을로 지정된 지역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출발하고 지정된 도착장소만 운행 가능
(예: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 마을회관-(구)문산터미널 또는 문산역)
 - 09:00부터 17:00까지 이용가능. 이용자는 편도 1천원을 부담하고 추가비용은 파주시가 부담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2019년 30개 마을로 시작한 이래, 예산 및 운행마을이 각각 6배, 2배 증가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억원)	2	5	8	10	11	12
운행마을	30	46	52	52	57	63

- 시행 초기인 2019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79%가 만족 (매우 만족 40%, 만족 39%) 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 확보

유사사업 사례

- (지역) 택시를 활용하여 교통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권 서비스 제공 사례
 - 이음택시(경기도 광주시), 100원 택시(전라남도), 마중택시(충청남도 아산시), 행복택시(국토교통부) 등
- 택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서비스 제공 사례
 - 임산부(인천광역시, 서울 은평구, 전남 영광군), 장애인(울산광역시, 충북 충주시, 경기 성남시, 오산시, 경남 함양군), 의료취약계층(충남 예산군), 교통약자(경남 밀양시, 강원 철원군), 어르신(제주특별자치도)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환경보호에 기여
 - 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무료로 제공하여 체류관광객의 증가를 도모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청송군내 농어촌(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
- 사업기간 : 2023년 ~ 계속
- 소요예산 : 3억5천만원
- 세부내용:
 - 농어촌버스 18대, 63개 노선(707.9km)에 대해서 실시
 - 기존의 농어촌버스 운영 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1억 5,120만원), 농어촌버스 수익노선 결손지원금(15억원), 버스요금 단일화 결손지원금(2억 5천만원) 등 기존의 농어촌 버스 운영 지원금과 별도예산 3억 5천만원 편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경상북도 청송군은 전국 최초로 보편적인 시내버스 무료탑승제도를 실시
- 매일 1,000여명이 이용해 종전보다 25% 증가 (청송군 자체분석 결과)
-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 제정 (2022.12.)
-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산소카페 청송의 이미지 제고

유사사업 사례

- 주민 및 외부인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무상대중교통을 실시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전라남도 완도군(23.9.1.~), 경상북도 봉화군(24.1.1.~), 충청북도 진천군(24.7.1.~)가 있으며 세종시는 25년 1월부터 계획하고 있음
- 지자체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공영제(경기 화성시, 서울 성동구 등), 특정 인구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환급하는 형태의 무상교통(충북 영동군, 전남 여수시, 고흥군, 경북 경산시 등) 등이 있음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설을 공급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 수요응답형 버스로 설계하여 농어촌·도서지역 대중교통 운영비용 절감과 효율화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경기도 내 교통불편지역 탑승객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소요예산 : 2024년 기준 315억(도비 40%, 시군비 60%)
- 세부내용:
 - 2021년 12월 파주 운정신도시 시범운영 시작
 - 2023년 경기도 독자 서비스로 운영하며 기존 셔클 어플리케이션에서 톡타로 변경
 - 승객이 톡타앱에서 출발지-도착지를 입력하면 호출 시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생성, 배차가 실시되어 정해진 노선 없이 탑승객 수요에 따라 운행
 - 승차 및 하차는 기존 버스정류장을 이용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도입 1년 만에 11개 시 136대 운행, 누적 이용객 168만 8천 명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23.7. 이용객 1,098명 대상) 평균 만족도 점수 86/100점, 추천 의향 94.5%로 이용객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도입 초기에는 교통이 열악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나 점차 도입 지자체가 확대되어 농촌지역도 도입 중
- 기대효과
 - 교통열악 지역의 접근성 개선으로 도민의 교통비용 절감 효과
 - 승객 수가 저조한 노선의 대중교통운영비용 절감 기대

유사사업 사례

-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는 동일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인 두루타버스 사업 실시 중

7

기본 금융

금융시스템에 대한
주민들의 차별 없는 접근·이용 및
신용거래를 보장하는 서비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안정에 기여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
- 연체, 부도 등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

• 사업기간 : 2023년 ~ 계속

• 세부내용

- 1인당 최초 300만원, 1년 후 신용점수 유지·상승 시 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상환기간 10년, 금리는 조달금리와 연동하여 3% 내외)
- 경기청년 기획사다리금융 사업의 일환으로 저축계좌(경기기획사다리통장)에 대한 마이너스통장으로 운영
- 손실 발생시, 도예산으로 조성한 기본금융기금으로 협약금융기관(하나은행)에 상환

• 소요예산 : 기금 500억원 (도비 10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신용이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1금융권에서 저리 장기대출을 확보할 수 있음

유사사업 사례

• 중앙정부의 청년대상 대출 상품

- 햇살론유스(서민금융진흥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지방정부의 이자지원 사업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사업(대구, 인천, 울산, 강원, 천안시, 강화군)과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사업(충북, 용인, 군포), 청년 및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서울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진행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출신 청년들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증진에 기여
- 영주 지역 고등교육 재학 청년들의 지역 정착 도모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지원일 기준, 영주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대학생(휴학생)
- 지원일 기준, 직계존속이 영주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대학생(휴학생)
- 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휴학생)
※ 1학년은 3개월 이상, 그 외의 경우 1년 이상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세부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총 12학기) 학자금의 발생이자 지원(학기단위 신청)
- 지원 학자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

• 소요예산 : 500만원 (군비 10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도모하여 2024년부터 10만명 이하로 감소한 영주시 인구의 회복 기대

유사사업 사례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경기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남 천안시, 인천 강화군, 경북 영주군, 진주시 등
- 대구광역시의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사업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주택도시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자 중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 이내 예비부부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 및 자산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소요예산 : 4억원 (시비)

• 세부내용

- 주택도시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자녀 이상 최대 8년)
- 자녀수별 차등지원(신혼부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0%)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 제16조(혼인장려 지원)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2023년 상반기에는 346건, 1억 3천만원, 2024년 상반기에는 482건 2억 1,800만원 지원
- 자녀수에 대한 차등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출산 및 양육에 기여

유사사업 사례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울시 강남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 안양시, 용인시, 수원시, 시흥시, 군포시, 구리시, 의왕시, 광명시, 여주시, 안산시, 화성시, 이천시, 가평군, 충북 청주시, 영동군, 충남 당진시, 태안군, 경북 영천시, 경남 사천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통영시, 거제시, 거창군, 함안군, 전북 남원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전남 순천시, 완도군, 영광군, 영암군, 여수시, 강원 고성군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시행 중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가을 수확기에 소득이 편중된 농업인에게 미리 출하예정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금융이자 등을 절감하여 농업인 생활안정 도모

주요내용

- 사업대상 : RPC(미국종합처리장), 농협, 원협 등과 연간 4백만원 이상 계약재배 농업인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소요예산 : 37억원
- 세부내용:
 - 무이자 융자사업(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으로 농가당 월 250~300만원 지급
 - 출하예정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금융이자 등을 절감
 - 출하약정에 따라 재배기간 내 월급 지급 후 농산물 수확 후 전액 일시 상환
 - 지급기간: 1월 ~ 10월 ※ 11, 12월 월급은 설, 추석 명절상여금으로 지급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화성시가 2013년부터 시행한 농업인월급제는 「농어민삶의질법」 제19조 2항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반영(2016.12.2.)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 확보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농업인월급제가 확산되면서 NH농협손해보험에서는 월급제 신청 농민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농업인생활안정보험을 출시하여 농업인월급제 사업을 보완하고 있음
- 2024년 168개 농가 지원 (벼 145, 포도21, 배2), 3,694백만원 지원

유사사업 사례

- 농산물대금선지급제는 농어민삶의질법 개정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 2022년 기준 농업인월급제에 참여한 농·축협은 220곳, 참여 농민은 7,400여명, 월급액은 약 817억 9,000만원 수준 (농협중앙회 자료)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광주 근로 청년의 소액단기 저축지원 및 금융역량 강화를 통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 지원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39세 이하 세전소득 '1인 생계급여+10만원' ~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임금을 받는 청년

- 월 급여 세전 813,102원 이상 ~ 2,674,134원 이하 (최근 3개월 평균)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소요예산 : 약 6.1억원

- 산출근거 : 610명 × 100만원

- 세부내용:

- 소액단기 자산형성 :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10개월)시 지원금 포함 약 200만원의 목돈 형성
- 금융역량 강화지원 : 온라인금융멘토링(필수), 금융교육프로그램(선택)
- 사후관리지원 : 저축 만기 후, 200만원 사용계획에 대한 사후컨설팅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2019년 상반기 160명 선정(1,038명 지원), 하반기 320명 선정(996명 지원) 2021년 490명 선정(1,639명 지원), 2022년 500명 선정(1,750명지원), 2023년 610명 선정(6,302명 지원), 2024년 610명(5,055명 지원)

- 2024년 신청자는 남성 25%, 여성 75%, 주연령대는 25~29세가 47%. 근로형태는 상용직이 72%,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임시직은 28%이며 평균 월소득은 215만원

유사사업 사례

-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2016년에 시작한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 대표적이며 중앙정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전국적으로 확산

- 부산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부산광역시), 미래두배청년통장(대전광역시), 청년희망디딤돌통장지원사업(전라남도), 모다드림청년통장(경상남도), 세종청년미래적금(세종시),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사업(전남 순천시), 익산시 청년자산형성통장(전북 익산시),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전북 순창군), 취업청년정착수당(전북 김제시), 으뜸관악청년통장(서울 관악구) 등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광산구 사회적경제기업 162개(협동조합 131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8개소, 마을기업 12개소, '16.5월 기준)의 동반성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성
- 기업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프로젝트 기획·잠재적 지지자를 발굴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회적경제 동반 성장을 통한 지역 내 양극화 해소 및 사회적 목적 실현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세부내용:

- 클라우드 펀딩 사전 워크숍을 통해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클라우드 펀딩을 이해시키고 실제 사례를 강의하여 관심 유도
- 클라우드 펀딩 참여단체 모집('16.1.)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8개 프로젝트 선정
- 8개 프로젝트 웹페이지 제작 및 펀딩 플랫폼 게시
- 펀딩 후 프로젝트별 펀딩 모금액을 전달하고 성과공유회를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담은 기업을 지역사회가 재정적으로 지원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2016년 1차 “워킹맘 일손돕기” 개인투자자 9명, 기업5개소에서 370만원 모금
- 2016년 2차 “엄마 손은 약손 엄마손길” 690만원 모금

• 기대효과

-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적 안정 확보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효과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 기업의 성장으로 유·무형의 효과 창출

유사사업 사례

- 수원시는 창업아이디어 오디션을 개최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자를 모집하고 관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시 창업비용을 지원
- 경북 칠곡군은 고향사랑 클라우드 펀딩을 발굴 및 추진(알배기협동조합)

8

기본 의료

주민들이 어떠한 질병이든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여
모든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서비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소아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로 저소득층에 한정
- 사교육, 민간보험 등 가계부담 증가로 아동 의료비는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됨
- 아동의 건강권 및 생명권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좌우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 조례시행일(2019. 4. 1) 이후 전입시 2년 거주기간 제한에 따름. 단 성남시 출생 생후 2년 미만 아동은 제외.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세부내용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전액 지원, 초과대상자는 90% 지원
- 연간 지원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 소요예산 : 2023년 1억 8백만원(시비 10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연도별 예산집행실적

- 2019년 2,900만원, 2020년 1억 9백만원, 2021년 5,800만원 2022년 6,900만원 지원

● 기대효과

- 한국의 가계직접의료비 부담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아동의료비 경감만으로도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며 우호적 양육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유사사업 사례

- 저소득층,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청소년, 고령자 대상 의료지원 사업은 적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의료비 지원 사업 사례는 많지 않음.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초등학교 대상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치치, 조기진료 등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영구치 우식을 감소 등으로 치과 치료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외에도 경기도 거주 만 10세 아동으로 동년령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 등 연간 약 12만 명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세부내용

- 치과주치의 온라인 서비스(구강보건교육, 문진표 작성)
- 치과 검색 및 검진 가능한 지정치과 확인, 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소요예산 : 2023년 약 46억원(도비 10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연도별 약 12만 명 청소년 대상 치과주치의 서비스 제공

• 학생 참여율 및 학생/보호자 만족도가 높은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로 정착

- 2019년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사에 의하면 대상 학생의 90.2%가 치과주치의 사업을 이용하였으며 학부모 92.4%, 참여의료기관 87.8%가 해당 사업에 만족.
- 2022년 사업에서도 대상학생의 92.3%가 사업에 참여, 참여 학생 97.1%가 사업에 만족

유사사업 사례

• 부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동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경기도 광주시, 강원 삼척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등

- 하남시, 광명시는 도 사업과 별도로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대상 치과주치의 서비스 지원
- 강원 삼척시, 광주광역시 동구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치료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가 보장하는 상해보험 자동 가입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청년 중 현역 군 복무자

-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 소방대원 등.
-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제외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세부내용

- 군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 후유장애 등 피해 발생시 보험 지원
- 상해사망시 5,000만원 보장(2024년 기준), 질병 후유장애, 입원 및 진단비, 수술비, 정신질환 위로금, 대중교통, 재난 상해 및 장해에 대해 보장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 시 자동 가입, 보험금 청구시에 신청. 청구 사유 발생 이후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 소요예산 : 2024년 1,397억원(도비 70%, 시·군비 3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2018년 11월부터 1년간 1,935명 대상 보험금 13억 5,000천만원 지급

- 연간 약 7~10만명 내외의 청년을 대상으로 보장
- 2023년 11월까지 약 74억 7,000천만원이 지급되었음

유사사업 사례

• 강원도 원주시, 경남 양산시 등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사업

- 원주시는 2023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현역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사업을 시행 하였으며, 경남 양산시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시민과 의료인이 협력하여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수익이 아니라 건강력 증진을 목표로 공동사업을 추진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일반시민, 의료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 세부내용

- 시민과 의료인이 협력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산하에 의료기관, 요양시설, 재택의료센터, 복지시설을 운영
- 영리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운영되며, 약물오남용 방지, 예방중심 의료체계, 찾아가는 방문진료 및 방문보건, 주민참여형 돌봄, 의료복지통합서비스 제공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단순히 수익사업으로서 의료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의 필요에 따라 예방중심 의료의 전형을 만들어 냄
- 특히 적극적인 방문의료 체계를 초기부터 운영하여 국가 차원의 재택의료서비스 제도에 유익미한 사례로서 역할을 하였음
- 장애인 주치의 제도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이 과잉의료의 노출을 피하고 보다 안전한 보건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는 면에서 긍정 평가

• 기대효과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영리가 목적인 의료체계와 확산이 더딘 공공의료 인프라 만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 의료협동조합 사례는 커뮤니티 의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음
- 특히 예방 중심 의료를 중시하여 만성질환의 예방에 효과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의료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사업 사례

• 전국 지자체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이 운영 중

-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전국에 약 28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들이 설립되어 운영 중

9

기본 일자리

취업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거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년 구직 활성화를 통한 청년의 사회구성원 자립 유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청년 취업을 제고와 지역사회 정착 유도
- 취업 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 해소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미취업 청년

- 관내 또는 관외 기업에 면접 응시한 자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세부내용

- 면접활동을 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만18~39세)에게 최대 21만원 면접수당 지원

● 소요예산 : 2023~2027년 5년간 594.6억원(도비 10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연도별 추진 실적

- 2020년 이후 지속 사업
- 도내 취업준비 청년 약 60,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
- 2020년 12월 기준 3만 6천여명에게 22억 8천만원 지원
- 면접 수당을 받은 지원자의 55%가 취업에 성공하여 '중소 기업 입사' 최다

● 기대효과

- 청년의 구직활동으로 청년 취업을 제고에 기여
-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역사회 정착, 경제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유사사업 사례

● 부산광역시, 음성군, 보은군 등도 청년면접수당 지원 사업 시행 중

- 음성군은 면접 1회당 5만원을 지역화폐(음성행복페이)로 최대 3회까지 지원. 보은군 역시 지역화폐 형태로 면접비용 지원
- 부산광역시는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부산 청년디딤돌카드+)하여 구직활동을 지원
- 전라남도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경력이음 바우처를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고령자 및 독거노인인구의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일할 의사와 능력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주요내용

• 사업대상: 성북구 거주 어르신

• 사업기간: 2013년 ~ 계속

• 세부내용

- 위드시니어(제1공동작업장): 종이가방, 쇼핑백 등 제조
 - 추진기간 : 2013. 9 ~ 년중
 - 참여인원 : 어르신 45명(2013년 15명 ⇒ 2015년 45명)
 - 수행기관 :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 길음실버메신저(제2공동작업장): 아파트 택배, 무인택배물품 포장
 - 추진기간 : 2012. 6 ~ 년중
 - 참여인원 : 어르신 40명(2012년 12명 ⇒ 2015년 40명)
 - 수행기관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 희망나눔빨래방(제3공동작업장): 임대(아)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 빨래
 - 추진기간 : 2015. 3 ~ 년중
 - 참여인원 : 어르신 8명
 - 수행기관 : 어르신복지과
- 실버그린이(제4공동작업장): 친환경 물품 제조판매(두부, 된장, 고추장 등)
 - 추진기간 : 2014. 11 추진
 - 참여인원 : 어르신 20명
 - 수행기관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지속적인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사업을 통한 소득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내도서관 인근 변종업소를 정비하고 청년 공방을 입점시켜 특화거리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 사업대상: 강동구에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

-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 사업기간 : 2015년 ~ 2028년

- 2016년 엔젤공방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엔젤공방 개소

• 세부내용

- 성내도서관 인근 변종업소 정비 후 구에서 일괄 임차하여 전세권 설정 후 엔젤공방 입점 지원
- 입점 첫해에 임차료 50% 지원
- 입점 공방업체 맞춤형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지원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1호점 개소로 젊은이 유입효과를 확인한 건물주의 인식 변화

- 엔젤공방 8개소 조성, 변종업소 감소(2015년 45개 → 2017년 25개)
- 청년일자리 창출(창업/교육을 통한 직·간접고용) 38명

• 인근 유명 외식업체와 대형 엔터테인먼트회사 입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 눈살 찌푸리며 돌아가던 거리가 아이와 함께 걷고 싶은 거리로 변모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선도사업(구성마을 권역)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노인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의 활력과 공동체 활성화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지역의 퇴직 중장년 및 노인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2014.6.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사업 시행

• 세부내용

- 지역의 중장년들이 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를 조직하고 공통의 관심사와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창출원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콘텐츠를 구상
- 퇴직 중장년들이 협동조합을 조직, 제2의 직업으로서 목공장·목공소 등을 운영
 - (영주시) 사업공간 조성, 도시재생 운영위 구성 지원, 지역주민 교육지원(도시재생대학 등), 사업추진 협조 요청(지역 유관기관, 학교 등)
 - (지역주민) 사업모델 구성 의견취합, 공동체 사업 참여, 판매제품 홍보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목공장과 목공소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일부 적립하여, 홀몸노인 식사 대접, 생활텃밭, 집수리,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 마을재생과 안전망 조성에 기여
- 주민주도 하에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더한 도시재생의 표준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실현
 - (할배목공소) 조합원의 지속적인 확대 및 주택 리모델링 등 사업영역 확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경제적 이윤보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일자리 제공과 고용확대를 위한 공익적 · 생산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광산구 주민 및 공동체 등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세부내용

- 『상생』으로 모든 세대를 이롭게 하는 복지와 일자리의 조화
 - 상생(相相)마을 프로젝트 『광산형 영구임대 사회돌봄』
 - 『공영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공공성 확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장애인의 자립과 활동보조인들의 근무환경개선 『다인』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 재취업·사회공헌·노후설계를 위한 『生生之樂 인생이모작지원센터』운영
 -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터 『더불어樂 협동조합』 새로운 노인일자리 발굴
- 주민참여형 광산구『배움의 선순환』일자리 창출
 - 양육의 사각지대를 밝히는 『병원아동보호사』
 - 평생학습으로 꿈꾸는 『꿈에 보짝 지도사과정』 운영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참여와 자치를 원리로 삼는 사회적경제를 지렛대 삼아 주민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새로운 상생 마을공동체 복원
 - 광산형 영구임대 사회돌봄 공동체 복원 및 일자리 창출(4개분야 36명 참여)
 - 공영복지시설 4개소 운영을 통한 공공성 확장 및 정규직 전환 (4개소 58명)
 - 장애인 활동보조 일자리 창출 자립지원 다인협동조합 (100명 취업)
 -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중·장년층 경력개발과정 (7개강좌 235명수료 취·창업 예정)
 - 어르신인 지혜와 재능에 맞는 더불어樂 협동조합 (3개사업단 35명취업)
 - 병원아동보호사 전문가 양성과정 (2기추진 67명 수료/ 47명취업)
 - 평생학습 꿈에 보짝 지도사 과정 (12개과정 1,911명 수료/ 146명 취업)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경비원들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갑을관계의 불합리한 제도 타파
- 동행계약서 확산, 경비원 고용안정 확약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으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성북구 주민 및 공동체 등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세부내용

- 도시 공동체 마중물, 주민리더 아카데미 운영
- 시민의 지혜로 위기에 처한 경비원 고용안정
- 성북구 모든 행정계약에 동행(同幸)계약서 도입 및 확산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하는 동행의 확산으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
-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동행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도시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동주택 리더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2016년까지 11회에 걸쳐 721명이 수료
- 석관 두산아파트에서 성북절전소 사업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을 LED로 교체하는 등 연간 전기요금을 4억원 절약하여 경비원 고용보장을 이루어낸 모범사례 창출
-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동행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입주자대표회, 용역업체, 관리소장, 경비, 구청을 아우르는 경비원 고용안정 확약식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 재단, 공단을 포함한 모든 행정계약에 기존 '갑을' 표현 대신 함께 행복하자는 '동행(同幸)계약서'를 도입하고 관내 전 공동주택으로 확산 노력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용인시 거주 구직 청년에게 무료로 정장을 대여하여 준비시간 및 취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
- 면접 지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청년 취업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업대상 : 15 ~ 39세 용인시에 거주하는 청년

- 실질적인 취업 면접을 위한 지원으로 모의면접자, 대학·대학원 면접자, 아카데미 교육과정 참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세부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5회, 1회 대여시 4박 5일간 대여
- 첫 대여시 신체치수 측정을 위해 업체 방문 후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으로 택배 대여 및 반납 가능

• 소요예산 : 2023년 기준 5,160만원(43,000원×100건×12개월)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면접 정장 구입에 대한 부담 완화
- 택배로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면접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기대

유사사업 사례

- 대전시, 울산시 중구, 북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화성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평택시, 포천군, 전북 전주시, 경북 경산시 등에서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시행 중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년 구직자의 취업자격증(자격증, 어학시험 등) 취득에 따른 응시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시험응시일 기준 속초시 거주중인 18~39세 미취업 구직자

- 당해 시행된 자격증 시험 실응시자(2회 이상 신청시 첫 번째 신청 이후 관외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세부내용

- 대상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범위
- 어학자격증 : 토익, 토익스피킹, 토플, 오픽, 텡스, 아이엘츠, HSK, JPT 등
- 기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기본, 심화)
- 해당 시험 응시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지역 청년의 자격시험 응시 및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지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
- 자격시험 응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활동 및 은둔형외톨이가 되는 것을 방지
-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활력제고 및 주민이익 창출
- 주민들이 설립한 여행사 ‘놀루와’를 통해 농촌사회 활력 제공
- 여행자 가이드를 통한 하동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 사업대상 : 하동군 주민 및 하동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 세부내용

- 주민주도 상향식 놀루와협동조합 창설(‘17.2.)
- 조합원 구성 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가, 협동조합 설립 후 관광사업 등록(‘18.8.)
- 소설 <토지> 배경인 평사리 들판을 걷는 ‘평사리들판 슬로워크’, 평사리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논두렁 축구대회’, 하동군 차 문화를 알리는 ‘차마실’, ‘다담인 다실’ 등 지역 특화 관광·여행 상품 개발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대표 상품인 ‘섬진강 달마중’은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 선정, 놀루와 협동조합은 2021년 관광분야 대표적 상인 ‘한국 관광의 별’ 선정
- 다른 관광 상품인 논두렁 축구대회는 2023년 28개 팀 참여, 외부 관광객 모집에 기여
- 협동조합 설립 후 2019~2020년 기간 경남 전체 외부 방문객은 0.1% 감소한 반면 하동군은 2.3% 증가(한국관광 데이터랩).

● 기대효과

- 60여개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으로 여행, 문화기획, 교육, 지역활성화에 기여
- 외부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사회 음식·소매업 등 매출 증가 기여
- 지역주민이 관광 가이드로 참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민의 애향의식을 고취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기술 습득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미혼모,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핸드메이드 제품 만들기과 강좌를 운영, 공동체 경험 습득 기회 및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달서구 거주 미혼모, 한부모 가족으로 아가씨잉협동조합 구성원

• 세부내용

- 미혼모 한부모 엄마 대상 아가씨잉 협동조합 창설('15. 3.)
-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미혼모, 한부모 엄마를 일정기간 교육 후 직원으로 채용, 일정 수준이 되면 자신의 공방을 개설하도록 지원
- 출산용품, 가방, 욕실용품, 침구, 악세서리 등을 생산 및 판매
- 수익을 통해 아이 돌봄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2019년 전국우수마을기업 선정(행정안전부), 2020년 여성기업 인증
- 노숙인밥모심, 마스크보급, 생활용품 및 도나콜뱅크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 참여
- 2021년 도나의 집 개관으로 미혼모 및 한부모 엄마를 위한 자립공간 구축
- 조합원 간 서로 자녀 돌봄, 임시쉼터 입소 전 주거 지원 등 사회적 공동체로 발전
- 4명의 자립엄마 배출, 참여 조합원 70명

• 기대효과

-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미혼모, 한부모엄마에게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내 문제 해결에 기여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내 취업취약계층 대상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협동조합 중심으로 개편 운영하여 상담, 교육을 지원하여 경제적 활동 지원
-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업 전환 컨설팅으로 지역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울산시 복구 소재 취약계층 및 협동조합원

• 세부내용

-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지원)
- 전문 상담사 배치 및 취약계층 특성별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사항 : 재직근로자 대상 생애(경력) 설계 프로그램, 퇴직예정자 대상 전직스쿨 프로그램, 구직희망자대상 재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울산장애인자립지원, 울산제과점, 동개동개육아 등 지역 내 3개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전환 지원 및 컨설팅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지역 내 취업취약계층 지원으로 상담 취업을 통한 구직인원 증가(2015년 1~5월 145명 → 2016년 1~5월 247명)
- 울산장애인자립지원협동조합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으로 지역 내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성장에 기여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지역 식재료 공급
- 지역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 유도로 판로 개척 및 농가의 경제적 안정 지원
-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관계시장을 구축하고 신뢰에 기초한 관계적 경제 형성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완주·전주 지역 내 농민 및 매장 운영 조합원, 소비자

• 세부내용

- 2012년 농업회사법인 완주로컬푸드 설립 후 직매장 개장
- 생산조직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기반 구축 : 신규생산자 교육, 로컬푸드 인증교육,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 등
- 농민 주도 가공품 생산을 활성화해 재료 접근성 개선 : 마을공동체 주도 가공품 생산(50개소), 로컬푸드 가공센터(2개소)
- 로컬푸드 1일 유통 직매장 확대 운영 및 학교급식, 공공급식으로 확대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로컬푸드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 및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기여
- 12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1년 매출액 600억 돌파
- 2020년 기준 159여개 전국 지자체 로컬푸드 사업에 성공 모델로 안착

• 기대효과

-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소비 진작에 기여
- 지역 농가의 경제적 안정 및 로컬푸드 운영 관련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공동체 사업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 마을발전의 기초를 세우고 마을 발전을 위한 마을기업 조탄마을영농조합법인 설립
- 마을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소득연계사업 발굴로 자립기반 조성

주요내용

• 사업대상 : 태백시 삼수동 조탄마을 참여 조합원

• 세부내용

- 마을 전통과즐 생산 및 판매 : 수작업을 통한 전통과즐 생산 및 판매로 마을 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
- 금굴 묵은지 사업 : 지역자원인 금굴을 활용, 묵은지를 숙성·보관·판매하여 마을 소득 창출
- 도릉골 촌집 운영 : 허름한 폐가를 활용, 방문객에게 소원성취 및 휴식처로서의 공간을 제공
- 산채 하우스 운영 : 주민 개인별 일정 금액을 받고 산채를 분양, 개인이 재배한 작물은 모두가 판매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창출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2014년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최우수상, 뉴빌리지 사업,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선정
- 2020년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수상(도비 1억원 지원)

• 기대효과

- 관광업 쇠퇴, 인구감소·고령화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마을이었으나 조탄마을조합을 통한 경제적 기반 마련
- 지역주민의 애함심 및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

10

공유 경제

개별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 개요

- 경기도 지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안화폐
 - 지역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경기도내 시·군민
 - 경기도내 각각의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사업내용 : 경기도내 시·군 지역화폐로 발행
 -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할인발행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 사행업소 사용 제한
 - 지역화폐 할인은 시·군마다 별도로 적용되며 7~10% 수준
- 소요예산 : 2024년 45,662억원 발행을 목표로 함
 - 일반발행 40,263억원, 정책발행 5,399억원
 - 2024년 7월 기준 총 25,590억원 발행(일반 22,730억원, 정책 2,860억원)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연도별 실적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발행액(억원)	5,612	28,519	37,7650	46,723	45,545	45,662(7월합계)

유사사업 사례

- 지역화폐
 -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합할 경우 둘 중 하나의 지역화폐가 모든 지자체에 활용중
 - 지역화폐 발행에 정부지원이 이루어져 정부지원액에 따라 발행규모 차이 발생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게임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게임 리소스 공유 플랫폼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개발사, 스타트업, 개발자들에게 양질의 리소스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개발사, 개발자의 자생력 강화
- 게임개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개발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확산
 - 게임개발 리소스: 아이템, 효과음, 배경음악, 이펙트, 배경 등 게임 구성에 필요한 그래픽, 시각효과, 사운드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경기도 내 게임개발사 및 개발자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세부내용
 - 게임리소스 공유 플랫폼 민간운영기관 모집 및 위탁 운영
 - 중소기업체와 개발자가 직접 제작하기에는 인력 부담이 크고 외주 제작 시 비용 부담이 있는 리소스를 민간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개발비용 절감
- 소요예산 : 2022년 기준 1억 5천만원(플랫폼 운영기관 지원 비용, 도비 10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2022년 기준 플랫폼 운영 민간 기관 모집 중
- 기대효과
 - 게임개발비용 절감을 통한 중소기업체 및 개발자의 게임 개발 활성화
 -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적, 경제적 효과 확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화폐 데이터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기본소득실험의 일환
 - 공공사업의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데이터산업 활성화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소, 기업, 학교 및 도민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세부내용
 - 지역화폐 데이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27.2억, 2022년 기준 4억(도비 10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예상 실적
 - 데이터 첫 판매 예상 금액이 5,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추정
- 기대효과
 - 알래스카의 기본소득 실험과 유사한 지역화폐 거래를 통한 기본소득 창출
 - 지역경제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과정에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혁신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일자리를 창출
- 수거된 커피박을 활용한 제품을 지역수요에 맞게 생산, 공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경제모델 수립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지자체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및 주민조직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2020년 서울 성동구의 시범사업 모델을 확대하여 2021년 국비사업 공모(행정안전부·대통령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지자체 확대 참여
 - 서울 성동구, 경기 안성시, 화성시

• 세부내용

- (사회적기업) 커피박 재활용 적정기술 보유 기업(사회적기업 4EN)을 통한 AI 기반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기술 인프라 지원 및 공공시설물 생산
- (지자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기획 및 재활용품 공공구매, 지역사회 참여 홍보

• 소요예산: 참여 지자체당 3억원 규모의 국비예산 지급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커피박 수거 실현 및 지역 산업현장과 수요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생산 인프라 구축
- 경기 안성시, 관내 100여 개 카페 수거 진행 및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수거인력 지원
- 금융기업(NH투자증권)의 20억원 규모 투자지원(2023년)을 통해 경기 안성시 내 친환경 저탄소비료 '바이오차(biochar)' 생산 특화공장 설립 및 가동(2024년)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급격한 주목과 활성화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국 최초의 공공안심상가를 조성

주요내용

• 사업대상: 지역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

• 사업기간: 2015.9 ~ 2018

- 2015.9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통한 공공안심상가 조성

• 세부내용

- (성동구) 시민단체, 임차인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 운영 (상가 운영 및 입주자 선정 등 결정), 상가 입주 지원
- 임대료 상승이 급격한 거점 내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의 입점을 제한하며 공공안심상가를 조성
- 주변 시세의 70~90% 임대료로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며 지역상권의 다양성 유지에도 기여
- 공공의 예산투입을 통한 점포 확보에서 시작되어 민간 협력(기부채납-공공기여)을 통한 거점별 상가 점포의 지속적인 확보 추진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2018년 성동안심상가 1호점 입주 및 영업 개시(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내 4개소) 이후 지속적인 상가 확대를 실현하며 현재까지 성수동 내 총 74개의 안심상가 운영 중
- 상가 입주 임차인들의 높은 만족도(94%)와 더불어 지역 소상공인 경제기반 조성에도 기여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자연·문화·역사자원을 연계한 생활관광 프로그램 '푸소(FU-SO)*'를 개발하여, 특색있는 감성여행이라는 강점으로 지역 생활인구 확대 및 참여농가 소득확보

* 푸소(FU-SO) : 강진군 생활관광(농박체험) 프로그램으로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전라도 사투리 '덜어내다'에서 착안

주요내용

• 사업대상: 강진군 농가

• 사업기간: 2015년 ~ 계속

• 세부내용

- 지역 고유의 발전된 농촌문화를 숙박체험으로 연계하면서, 군과 제휴하여 운영하는 농가에서 제공하는 숙식을 기본으로 권역별 관광지·체험지 방문의 프로그램 구성
- 참여농가대상 운영 및 시설구축 시 예산 매칭지원으로 안정적 소득마련 기반 조성
- 전원주택,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관내 참여농가를 확보하며, 관외 지역에서의 푸소 운영을 위한 이주 시 주택신축을 지원하는 등 도시민의 지역정착을 연계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2015. 5. 학생 위주의 체험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을 시작한 이후 공무원 및 일반인 대상, 일주일 살기, 시티투어 등 보다 다양하게 확대 운영
- 2021. 참여농가 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농가 운영자(주민) 협동조합 설립 및 조합 내 90개의 푸소 운영 농가 참여
- 2023년까지 약 5만 8천 명이 지역농가에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약 53억원 규모의 참여농가 소득 창출을 달성(농가 당 연평균 1,000만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급식 분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이후 배달음식 소비가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활용방안 모색
 - 구매-수거-세척 등 단계별 비용 발생으로 급식 제조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 해소를 통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 친환경 일회용 용기사용의 경우 다시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분해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게 하는 등 순환을 만들어 가는 과제 고민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도시락 형태로 급식 공급을 하는 센터 등

• 세부내용: 도시락 센터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사업체계 구축

- 도시락 생산 및 포장 → 공급 → 수거 → 세척 → 재공급 혹은 재활용 체계를 민관이 협력하여 준비, 시행되도록 다회용기 공급환경 구축
- 세척·회수시설 지역별 거점 마련으로 다회용기 수요 증가에 대한 시설 확대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적 다회용기 사용 모델 마련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재활용, 재사용 활성화로 자원순환 및 자원절약문화 확산으로 탄소중립에 기여
-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원천 감량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여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 행복시대 구현
-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혁신적인 공동체 운동 추진
- 자립적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공동체)의 결속 필요

주요내용

• 사업대상 : 통두레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마을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세부내용

-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주민모임지원을 통한 통두레 활성화
- 주민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미추홀구형 마을만들기인 「학산마을 만들기」와 연계해 미추홀구만의 특색있고 실천적인 마을 활동 브랜드로 육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지역 문제해결 및 구의 정책 수립 있어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 역할을 해 나가며 정책에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이 함께하는 '상향식 정책사업'으로 성장
- 기흥주택 통두레 모임 : 마을 쓰레기 정비 및 벽화조성
- 노적산호미마을 : 통두레에서 시작해 마을단위종합계획까지

• 기대효과

- 주민자치의 능력 향상,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에 대한 가치 발견을 통한 자긍심 및 정주의식 향상 기여
- 지역문제에 대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이 소통·협력하여 해결하는 '주민 참여의 실천적인 롤모델'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연·취소와 구도심지역 노후화에 따른 폐·공가 방치사례 증가,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년 탈선장소 이용, 건축물 화재 및 지역안전 문제해결 방안 모색
- 대부분 낙후 지역으로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
- 공가 관리 소홀로 도시미관 저해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구도심 폐·공가 등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2013.01 : 공가 활용 T·F팀 구성 및 운영
 - 2013.09 :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제정
 - 2015.03 :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개정
(정비사업구역 내 → 일반지역까지로 확대)
- 세부내용
 - 공가활용 사업을 통해 시설물 안전 도모
 -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공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
 - 구도심 지역의 새로운 도시발전 방안 모색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조례 제정을 통한 석바위 통두레 사랑방 등 10개소 리모델링 완료 후 지역내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
 - 사랑방 2개소,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4개소, 학습편의점 1개소, 경로당 1개소, 문화예술 창작공간 2개소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남시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상권개발 및 사업 프로그램과 매우 취약한 인프라 및 조건으로 지역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상권프로그램 운영 필요

주요내용

• 사업대상 : 7개 지구(수정 시범확대, 성호중앙, 단대, 대원, 은행, 서현·수내)

- 2,343,000㎡, 23개 시장, 18,214개소

• 사업기간 : 2011년 ~ 2020년

- 2010. 10월 : 기존 시가지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2011. 5. 25. :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 선정(중소기업청)
- 2012. 5. 30. : 상권활성화재단 출범(2011. 12 : 설립·운영 조례 제정)
- 2014. 3. 19. : 산성로 상권활성화구역 추가 유치(중소기업청)
- 2014. 6. 8. : 도심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준공
- 2014. 7. 28. : 산성로 사업계획 승인·고시(2014. 6. 23 : 구역지정고시)

• 세부내용

- 공동마케팅사업, 모범점포 육성, 교육(상인대학·대학원·공동마케팅기획자·기업승계자·스마트폰활용), 스마일기자단·소셜마케터단 운영,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 빈점포 활용, 풍경있는 골목조성 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 전점포 2,153개소 대비 약 40% 공실점포 감소하였음
- 요식업 연평균 매출성장률: 성남시 전체 상권 0.4%, 수정로 상권 2.9% 성장
소매유통업 매출성장률: 성남시 전체 상권 0%일 때 수정로 상권 4.9% 증가
생활서비스업: 성남시 전체 상권 -2.6%로 위축되는 동안 수정로 상권 1.8% 성장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행정과 민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체계적·종합적 지원 기관 설립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광산구 중간지원조직 등

● 사업기간 : 2010년 ~ 2013년

- 2010. 7. :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검토보고
- 2013. 4. :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 세부내용: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부여

- 센터역할 : 행정과 민간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광산공동체 지원
- 광산공동체운동 추진 : 마을공동체업무 + 광산구마을지원네트워크
- 활동계획: 광산 마을시대 개막 - 6개 목표, 12개 과제, 29개 사업
 - 풀뿌리마을 지원팀: 주민이 만드는 마을만들기, 마을네트워크 토대 마련, 생활자치 조사 연구
 - 사회적경제 지원팀: 사회적경제 저변확대, 협동조합지원센터 시스템 구축과 역량 높이기
 - 플랫폼운영 지원팀: 주민참여플랫폼 활성화, 주민네트워크 구축, 주민참여 커뮤니티 창출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광산마을학교 운영,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사회적경제·협동조합 교육, 연구조사 시행
- 전국 최초 공익활동 지원 통합 모델
- 주민자치 활성화·공동체 역량 강화
- 중간지원조직 선도로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융합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 맞춤형 사회적경제공동체 구현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서구주민 및 마을공동체 등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세부내용

- 1洞 1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기반 조성
 - 마을공동체 발굴·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16년 103건/1,283백만원
 - 마을리더 및 공동체대표 간담회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등 추진
- 마을 맞춤형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육성
 -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사업설명회 추진 : 16개동, 699명
 - 마을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실시 : 사회적경제 교육 9강, 현장견학 등
 - 공동체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우수공동체 4개팀 등
 - 우수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 및 지원 : 20백만원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품 판로 지원 확대:나눔장터 등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추진 : 우선구매 교육 4회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사회적기업협의체, 협동조합협의체 구축·활동 : 워크숍 및 간담회 연1회
 - 사회적기업협의회 주관 상생 프로젝트 추진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마을공동체 사례별로 맞춤형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을 통한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 해결
- 마을주민의 착한소비를 통해 마을문제 해결 및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형성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방직산업 축소로 인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노후주택 및 공·폐가증가 등 주거 환경 악화에 따른 대안모색
- 마을을 이루는 객체 간의 협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의 마을공동체 회복 및 지역 발전 도모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서구주민 및 마을공동체 등

● 사업기간 : 2015년 7월 ~ 2018년 12월

● 세부내용: 서구청, 공공미술프리즘, 현대자동차, 마을주민의 협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마을주민, 자생단체, 유입 청년, 민간사업, 행정의 함께 협치네트워크 조성
 -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마을내 활동단체의 특성을 살려 협치네트워크 체계 구축
 - 마을 현안 및 추진사업 일정 공유를 위한 주민 총회 개최(1회/월), 마을화관 조성
- 마을 내 공·폐가, 나대지 정비를 통한 마을 공용공간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 마을주차장 조성, 마을텃밭 및 주민공동작업장, 108계단 주민쉼터, 현장지원센터, 별마루 발산커뮤니티센터, 샘물경로당 개·보수
- 급경사 골목 재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 마을회의(5차례)를 통한 주민의견 토대로 급경사, 노후골목(4개 구간) 정비
 - 집수리선정위원회(주민3, 행정3, 전문가3) 구성하여 노후주택정비 및 지붕개량지원 등
- 마을 내 청년 활동단체의 유입과 활동을 통한 마을경제 활성화
 - 청년단체의 유입으로 마을카페, 마을식당, 게스트하우스 등 마을상권 형성
 - 마을축제 개최 및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반 구축을 위한 마을학교 운영
-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 가마솔부뚜막공동체의 “가마솔데이”, “행복줍기”, “행복장학금” 활동
 - 주민협의체 창립, 주민회의(1회/월) 개최

● 소요예산: 5,113백만원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구도심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 청년단체 유입을 통한 마을상권 형성 등 마을경제 활성화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도심 인프라의 이전으로 지역 상권의 급속한 침체, 신도시로의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원도심 인구의 대폭 감소 등으로 인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상권활성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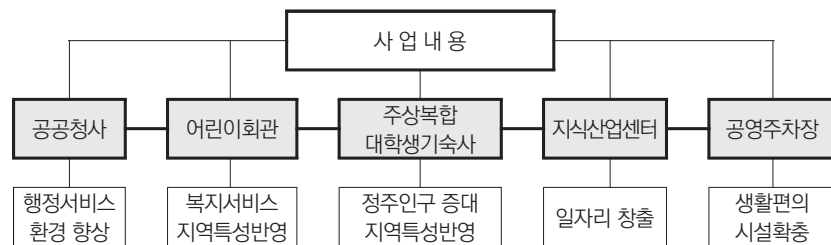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동남구청사 및 원도심 일대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세부내용: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 동남구청사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및 연계사업 등 지역 자력형 재생사업 필요
- 사업전략 :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기금을 활용한 국내 1호 도시재생사업 추진
 -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사업 제시 및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활용한 투자
 - LH 미분양 매입 확약 및 현물 출자, 공공시설 인수를 통한 사업 리스크 해소



• 세부내용: 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

- 원도심종합지원센터 : 연계사업 등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원도심 핵심적인 지원 역할
- 명동거리 및 중앙거리 등 활성화사업 : 보행환경 및 주차장 정비 추진
- 청년에게 희망을 :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및 아트큐브136을 통해 청년 및 활동공간 조성
- 천안역세권 및 천안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17.12.14일)을 통한 '新 경제·교통 중심의 스마트 복합 거점공간' 및 '고령친화마을' 조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 사업은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의 롤모델로 부상
- 84년이 경과된 노후청사를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탈바꿈하여 원도심 랜드마크로 추진
- 원도심 빈집·빈점포 등 유휴공간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학 협치 모델 발굴 및 전파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 체계 구축 도모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금천구 주민 및 마을공동체 등
-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
- **세부내용**
 - 학교와 연계한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만·관 공동영업단 운영
 - 민·관 협업을 통한 '글로벌 공정무역 거점' 구축
 - 「도시재생 기반 마련」 마을관리소 프로젝트 추진 및 운영
- **소요예산**: 9,000만원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선도적인 민·관·학 협치를 통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 사례 제시
 - 학교 취약계층 조식 및 방학기간 돌봄 안전한 먹거리 급식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 다양한 학교 문제(학교 폭력 예방, 안전한 먹거리 교육) 협업 추진
 - 특화된 사회적경제 판로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민·관 공동영업단 운영(자치구 최초), 사회적경제기업 매출 증대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외부자원 유치
 - 외부자원 1,606백만원 유치(2017년도, 자치구 1위 규모)
 - 『세계가 주목하는』공정무역 거점 구축
 - 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한 지역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원도심 주택 노후화, 경제적 쇠퇴 등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와 지속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실현 및 지역공동체 활동의 자생력 확보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시흥시 주민 및 공동체 등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세부내용

- 주민협의회 계획을 기초로 한 주민중심 도시재생
- 주거환경재생사업을 주민 스스로 수립하여 함께 추진
- 주민 재능 강화와 이를 활용한 사업실천을 통해 자생능력 확보
- 주민 스스로 지속가능성 확보(네 번째 원칙)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마을·도시재생 통합지원센터의 선도적 모델로 역할 수행
-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선도모델(동네관리소)로 평가
-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
 - 전국 최초 주민계획가 제도 도입(2011.6)
 - 주민밀착형 지원 전담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2016.6)
 - 마을경제 회복과 순환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강화
- 주민과 공동으로 마을정비 사업 시행: 도일시장 및 모랫골 맞춤형 정비사업
-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 인식 및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공동체가 만들고 키워가는 동네관리소 : 11개소 운영
 - 주민들의 도시재생 인식강화, 도시재생 사업기반 조성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양극화와 개인주의로 마을공동체정신 상실 위기, 논산시 노인 문제, 문화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삶의 질 저하 우려 등에 대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문제해결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논산시 주민 및 공동체 등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세부내용

- 마을회관·경로당을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용

사업내용

- (학습) 전국 최대 규모의 성인문해교육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
 - 시대적 환경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께 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생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홀몸 어르신 공동생활제』
 - 홀몸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노노케어 강화
- (건강) 자식처럼 살뜰하게 돌봐드리는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 건강관리』
 - 고령화 사회 의료기관 이용 불편에 따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논밭은 쉬어라, 나는 잠깐 놀다올란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실음악회』
 - 문화소외지역 주민에게 작지만 큰 기쁨을 드리는 맞춤형 문화혜택
- (독서) 논산에만 있는 『마을공동체 작은 도서관』
 - 어디서나 책 읽는 환경 조성 및 독서지도사, 한글대학 강사를 통한 독후활동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
 - 2016년 22개소 280명 → 2017년 146개소 1,650명 → 2018년 265개소 2,500명
- 홀몸 어르신 공동생활제
 - 2016년 20개소 121명 → 2017년 87개소 510여명 → 2018년 100개소 600여명
-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 건강관리
 - 2016년 19개소 317명 → 2017년 477개소 6,835명(연말까지 516개소 전체)
-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실음악회
 - 2017년 147개소 3,500명(연말까지 300개소 7,000여명) → 2018년 516개소
- 마을공동체 작은 도서관
 - 2016년 100개소 4,489권 → 2017년 132개소 5,904권 → 2018년 163개소 7,454권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술산업 위주 발전에 따른 문화예술 인프라 미흡과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 충족할 공간 마련
한계극복을 위해 기존 건물 활용 가능, 주민접근성 높은 전철역사 내 유희공간 활용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구로구 역사 내 유희공간

•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 ~ 1월 31일

• 세부내용:

- 신도림역 및 천왕역 유희공간 활용
 - 신도림 선상역사 내 2·3층, 579.8㎡, 2017.2.21.개관, 구로문화재단 위탁운영
 - 천왕역사 내 지하2층, 900.39㎡, 2017.5.17.개관, 민간협력방식 운영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유희공간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활용
 - 신도림역 : 가족이 함께할 공간 필요 → 어린이와 부모 위한 공간마련
→ 북&키즈카페(친환경 편백놀이존, 미니기차, 유아서적 2,000여권 등)
 - 천왕역 : 모임 활동장소 부족 의견 →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 주민모임방, 동아리연습실, 공유매장 등 구성
- 無의 공간에서 有를 만드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
 - 신도림역 문화철도 959 : 예술창작공간 5개실에서 13명의 입주작가 활동.
역사 벽면에는 입주작가 작품을 상시 전시하는 959갤러리 구성
 - 천왕역 버들마을활력소 : 한목회,사진협회 등 지역예술가 4개 단체 입주, 창작활동, 공공성 확보하도록
민관운영위 갖추어 체계적 운영
- 지역주민과 지역예술가 교류하는 지역문화소통의 공간으로 활용
- 지역예술가들이 직접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화철도 959 : 입주작가가 문화교실, 예술탐험대,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 버들마을활력소 : 입주단체가 '주민문화예술학교' 운영
- 문화철도 959 오픈스튜디오 행사 및 전시회 개최
- 버들마을활력소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축제 개최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천안역 쇠퇴된 원도심의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원도심 내 빈 건물·점포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방안 모색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천안역 주변 원도심 일대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세부내용:

- 시민이 디자인하는 문화도시 천안
- 청년문화로 원도심 살리기



● 소요예산 : 2014 ~ 2018년 기준 126억원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아트큐브136,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조성 및 운영을 통한 원도심 내 문화허브 기능 수행
- 시민주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창의인재 발굴 및 리더그룹 조직화
- 활동가들의 콘텐츠 생산 및 사업실행으로 시민자립형 활동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 문화활동 결과물을 발표하는 축제 개최를 통해 문화를 활성화하는 도시 이미지 구축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년마을 조성을 통한 지역 정착과 취·창업 연계, 지역 활력을 도모
- 지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접목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영덕군 영해면 일대 청년마을 조성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세부내용:

- 지역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시도를 원하는 청년들이 모여 천혜의 자연환경(블루로드)을 활용한 콘텐츠(트레킹 특화의 ‘뚜벅이마을’)를 개발하여, 지역에서 지내며 콘텐츠를 경험, 이후 지역으로의 정착 유도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조직(로컬 청년벤처)이 참여하여 영덕군의 유명한 블루로드 트레킹을 특화한 마을을 조성하고 ‘살아보기’, 각종 트레킹 등 프로젝트 진행
 - 지역 내 유휴공간을 소품샵 및 게스트하우스 등의 거점공간으로 구축하여 청년들의 단기방문이 아닌 장기체류와 깊이 있는 탐색을 이끌어 지역유입을 활성화

*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2018~)

지역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

→ 현재 전국 39개 청년마을이 조성되어 지역살이, 위케이션, 청년 로컬 창업, 문화예술, 여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 운영 중 : 목포시 관창마을, 강진군 어나더랜드, 순천시 브롱브롱 마을 등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플로깅’, 농가봉사 등 청년들과 지역사회의 관계맺기 활동 지원
- 뚜벅이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의 이후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주택 및 공유오피스(‘청년다오소’), 커뮤니티 공간(‘청년모디소’) 등 조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성과

- 2021년 4월 사업 선정 후 2021년 6월 청년 로컬벤처 ‘메이드인피플’, 영덕군 청년마을(뚜벅이마을) 운영 시작
- 2022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으로 청년주택 및 커뮤니티 복합공간 추가 조성
- 2021년 이후 꾸준히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지역 농산물 활용한 창업 등 후속 연계 :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4명

기본사회 대전환, 지역부터 실천한다

지방정부 기본사회 정책 사례 : 10대 정책, 100개 과제

발 행 인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편 집 책 임 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편 집 신영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김병윤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한가람 민주연구원 주임

발 행 월 2024년 11월
